

경인고속도로 이제, 우리의 생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시 일반도로 전환

2017년 12월 1일(금) 자정(00시)부터

인천기점 — — — — — 서인천나들목

속도 제한
기존 100km/h → 80~60 km/h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등 통행 금지
갓길 주·정차 금지



12
DECEMBER

열두 번째 길
민족 역사의 길





백령도 - 섬산
117×80(cm) oil on canvas 2013

평화를 기원하는 섬, 백령도

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령도이지만,
최북단에 있기에 눈앞의 장산곶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멀어 가슴 아픕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백령도가 우리 모두의 열망인 평화를 잉태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그렇게 남과 북이 마주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평화를 기원하며 찾은 섬, 아픈 기억을 품고 있는 백령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평화의 바람을 담아 전합니다.

고제민 작가 인천 출생(1960), 서울예술고, 덕성여대 서양화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현) 인천영화관광경영고 재직, 한국미술협회 회원, 개인전 6회, 부스전 5회, 단체전 및 해외전 다수, '엄마가 된 바다'(2015) '인천의 항구와 섬'(2013) 출간

발행처 인천광역시__발행일 2017년 12월 1일__발행인 인천광역시장__편집인 박혜란(브랜드담당관)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 팀장)__기획·취재 편집위원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__사진 김성환·류창현·홍승훈
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__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INCHEON MONTHLY MAGAZINE _____ 2017 **DECEMBER** _____ VOL. 288

굿모닝인천



열두 번째 길; 민족 역사의 길
(인천대공원 백범광장에서, 백범 김구 동상)

- 06_드론 찰칵, 달리 본다 아듀, 인천 풍경 2017 11_백범일지 70주년 - 백범 김구를 만든 인천 - 백범일지 속 인천
- 백범 김구를 만든 인천 사람 - 영화 '대장 김창수' 28_인천글로벌캠퍼스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개교
32_화제의 인물 '인천' 노래하는 가수 나유미 36_문화 캘린더 박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外 40_박물관 이야기
42_시정 뉴스 이란공장 보셨어요? '아름다운 공장' 2곳 선정 外 46_의정 뉴스 인천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外
48_컬러링. 인천 정서진 51_인천의 생물 이야기 생물 보물섬, 서해5도
52_Info Box 인터넷신문 I-View 사이트 개편 기념 이벤트 外 58_모닝 커피 한잔 59_몽(夢)땅 인천 골목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 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 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032-440-8306

인천 통통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다면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홍보콘텐츠 블로그 ‘인천 에피소드&해피소드’
(blog.naver.com/happylong7)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allwaysincheon)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allwaysincheon)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allways_incheon)
웨이보(www.weibo.com/incheon)

인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께서 120미추홀콜센터에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궁금할 땐 언제나 120미추홀콜센터 (032)120



시청에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까요?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분야별 정보 → 체육관광 → 인천문화 → 이달의 문화행사로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대교 내에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천대교 교통센터 상황실(☎ 745-8100)에 문의한 결과, 인천대교에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설치 장소는 인천대교 요금소와 영업소, 인천대교기념관 세 곳이며, 대교 내에 119가 상주하고 있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학산을 가보고 싶는데, 관련 홈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인천 남구청 홈페이지(namgu.incheon.kr)에서 → 문화 → 민속문화 → 문학산 둘레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우리 산 전체 보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경인아라뱃길 인근에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경인아라뱃길 및 서해 갑문에서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라종합안내센터(☎ 1899-3650)로 문의하세요.

신도림역에서 송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 법을 알려주세요.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승차 후 동인천역에서 하차. 동인천역 6번 출구로 나와서 50미터 직진, 동인천역 정류장에서 16번 버스 승차 후 삼익아파트·달동네박물관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남구 주민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생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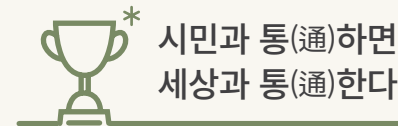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888-8260~3), 남구노인문화센터 (☎ 862-3910), 주안노인문화센터(☎ 867-3312), 남구노인복지관(☎ 861-3001)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합니다.

시민 소통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2017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시민과 통(通)하면
세상과 통(通)한다

300만 인천 시민과 통하니, 세상과도 통했습니다.
‘진짜 인천, 진솔한 삶의 보고(寶庫)’를 모토로 매월 발행되는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2017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 사보, 사외보 부문 최고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오랜 전통을 가진 홍보 매체로, 시민 접점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인천이 가진 다양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기획 및 편집 기술력, 독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다각적인 채널 운영 등에서도 긍정적인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행보는 온라인에서도 통했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KICOA)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2017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최고 점수 AAA를 받아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시 공식 SNS ‘ON通인천’은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등 8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시정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300만 인천 시민과 교감하는 소통광역시. 공유와 공감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 440-8305, 3043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차곡차곡 쌓여가는 인천, 그리고 굿모닝인천

독자 박여진(33·부평구 산곡동)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으로 이사 온 지 이제 꼭 1년 된 새내기 인천 시민입니다. 이사 첫날 찾아가던 인천시청에서 ‘굿모닝인천’을 처음 읽게 됐으니, 지금까지 거의 같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굿모닝인천’은 낯설던 인천을 안내하는 친절한 길잡이였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주말에 시간이 날 때면 ‘굿모닝인천’에 소개된 내용을 따라 인천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둘레길을 거닐며 만나는 산과 공원, 가까운 바다와 저마다의 색을 지닌 섬,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진 도시 풍경은 일상에 지친 삶을 보듬는 활력소가 됐습니다. 도시 안에 이토록 다양한 가치와 이야기가 공존한다는 것이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길을 떠나고, 길 위에서 만난 모든 것들이 인천을 만드는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는 순간, 서먹하고 낯설던 인천은 점점 익숙한 것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 방 책장엔 ‘굿모닝인천’이 차곡차곡 쌓여 가고 있습니다. 쌓여 가는 책만큼 인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함께 자라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는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을 읽고, 인천을 만나고, 인천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작은 책장이 인천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질 쯤이면, 인천이 낯선 이들에게 좋은 여행 친구가 되어 줄 수 있겠지요? ‘굿모닝인천’과 함께할 인천에서의 삶이 더욱 기대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인천,
하늘 아래
잘 지내다

2017년 한 해, 드론이 인천 하늘을 날았다. 북성포구에서 갈매기와 깜짝 조우했고 자유공원 맥아더장군의 머리 위를 ‘불경스럽게’ 선회했다. 수도국산 비탈진 산동네와 꼬부랑이 돼 버린 십정동 골목을 한눈에 훑히 내려다보았다. 갯벌과 바다 위를 휘이 날아가 풀등의 기묘한 자태를 풀샷으로 담아냈고, 강화도의 천 년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돌아왔다. 결론은, 인천은 하늘 아래 모두들 잘 지내고 있었다. 2018년도 평안을 기원하며 인천 곳곳으로 올 마지막 비행을 했다.

드론 촬영 **홍승훈** 자유사진가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인천 앞바다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배들이 자주 나타났다. 고종 16년(1879) 강화도에서 캐 온 돌로 화도진(花島鎭)을 구축했다. 당시 진지는 소나무 숲으로 뒤덮였고 바로 밑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어왔다. 1894년 폐쇄된 화도진은 100년 남짓한 세월이 흐른 1988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화도진도’를 토대로 복원됐다. 한 세기 전의 그날처럼 동헌마당에는 오늘, 가을 햇빛 한 줄기와 낙엽 한 장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 ‘인천상륙작전의 길잡이’ 등으로 알려진 덕분에 그 ‘외모’에 대한 평가는 좀 소홀했다. 옛 인천인들이 ‘석양에 섬을 돌아드는 돛단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한 나머지 그 풍광을 ‘팔미귀선(八尾歸船)’이라 하여 ‘인천 팔경(仁川八景)’의 하나로 꼽았을 만큼, 팔미도와 그 등대는 풍광이 뛰어나다. 큰 섬과 작은 섬이 모래톱으로 연결돼 뻗어 내린 것이 마치 꼬리와 같다고 해서 팔미(八尾)라 불렸다. 해발고도 58m 산꼭대기에 1903년 6월 설치된 팔미도 등대(사진 오른쪽 아래)는 지난 100년간 인천으로 들어오는 배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됐다. 2003년 100년간의 임무를 마친 옛 팔미도 등대는 인천시 지방문화재 40호로 지정되며 퇴역했다.



월미산에 오르면 바다가 바로 발아래다. 그 산 위에는 원통 유리벽으로 된 월미전망대가 있다.
이곳에 오르면 바다보다 하늘이 더 가깝다. 멀리 인천 앞바다에 흩어져 있는 섬, 섬, 섬, 섬들을 한아름 품을 수 있다.



꼬불꼬불, 다닥다닥, 울퉁불퉁... 십정동 열우물 마을은 모든 게 기울고 넓었다.
진흙에 뱃집을 넣어 개서 만든 토담집들은 이미 속을 흰히 내보였다. 아랫길에서 꼭대기 집까지 이어진
좁고 긴 층층계단은 깨지고 비탈졌다. 이제 이곳은 그 아픔과 설움을 모두 땅속에 묻고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 한다. 인천에서 골목이 또 하나 사라진다.



길이 18km, 폭 80m, 수심 6.3m의 인공 물길, 경인아라뱃길. 그 거대한 물길은 서해 바다와 한
강을 이어준다. 아름다운 마을을 뜻하는 ‘수향(水鄉) 8경’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다.
하늘 날던 UFO도 풍광에 취해 아라뱃길에 불시착했다. 이름하여 ‘아라마루’다.





바다는 하루에 두 번 그 모습을 바꾼다. 푸른 물결과 진회색 갯벌의 은근한 교차. 갯벌은 바닷가의 별판이다. 물은 억겁의 시간을 찰물에 담고 곰삭혀서 또 다른 생명의 땅 갯벌을 만들었다. 강화는 갯벌로 둘러싸인 섬이다. 바다와 땅이 갯벌에서 만나 들숨과 날숨을 서로 나누며 천년의 바람을 함께 숨 쉰다.



낮에는 너무 높고 눈부셔 볼 수 없던 당신을 / 이제야 내 눈높이로 바라 볼 수가 있습니다. / 너무 가까워 노을빛이 내 심장의 피가 됩니다.’ (이어령 ‘정서진 노을 종소리’ 중에서).
이글거리는 태양보다 고운 빛으로 사그라지는 노을이 더 아름다운 곳, 정서진이다.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루의 끝 시간. 소산한 가슴을 달래고 다시 시작할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서쪽 끝 길로 나선다.



기획 특집 **백범 일지 70주년**

白凡金九

인천, 백범 김구를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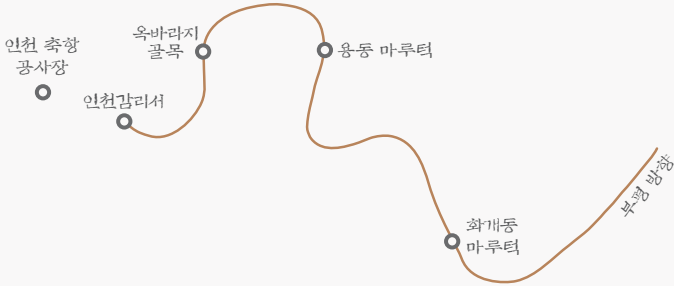
백범일지(白凡逸志)가 세상에 빛을 본 지, 올해로 딱 70년이다. 1947년 처음 조선인쇄회사에서 간행한 백범일지는, 민족의 이념이 담긴 역사적인 문헌이자 독립운동의 증언서다. 무엇보다 한 인간의 뜨거운 마음이 기록된 의미심장한 ‘유서’다. 중국 상하이와 충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끈 백범 김구는, 항일운동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유서를 대신해 책을 썼다. 그 안에는 위대한 민족 지사(志士)의 파란 많은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896년과 1914년 두 차례의 옥고와 죽을 만큼 힘든 노역, 도망자로서의 삶. 청년 김창수를 ‘백범 김구’로 다시 태어나게 한, 인천에 대한 짙은 감회도 곳곳에 서려 있다. 기억하고, 또 자랑스러워하길 바란다.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백범 김구가 있기까지 그 깊숙이에, ‘인천’이 있다.

백범 김구가 있기까지
그 깊숙이 인천

‘인천은 의미심장한 역사 지대다.’ 백범 김구는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인천으로 가장 먼저 달려왔다. 그만큼 인천에 대한 그의 감회는 남다르다. 두 차례의 옥고와 고된 노역, 도망자로서의 삶. 하지만 그 안에서 청년 김창수는 민족의 지사(志士) ‘백범 김구’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도시지원디자인연구소 장희숙 선생과 함께 1900년대 지도를 들고, 백범 김구의 흔적을 찾아 길을 나섰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獨立萬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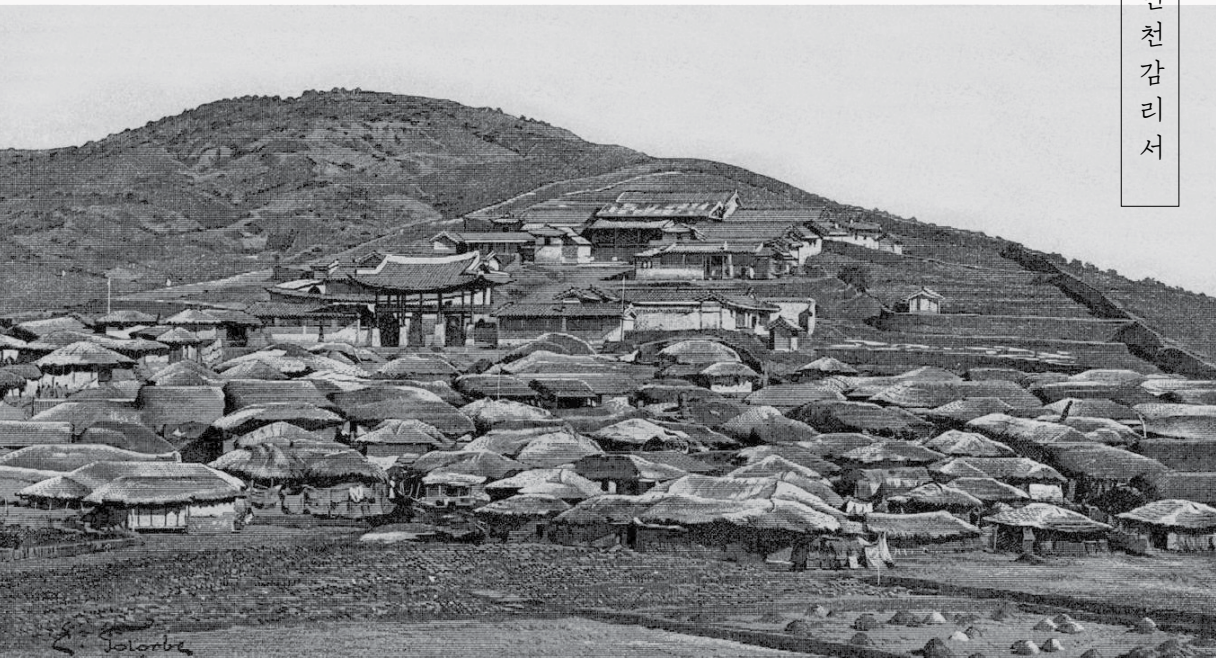


백범 김구는 인천감리서를 빠져나와, 화개동 마루턱에서 길을 택한다.
그가 걸은 길은 훗날 민족의 앞날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된다.



백범일지 70주년

백범 김구를 만든 인천



인천
감리서

옛 인천감리서

‘인천 감옥소에서 신문물을 익히며
항일운동가로서의 사상을 정립했다’

청년 김창수,
민족의 지도자로

1896년 3월 9일 황해도 치하포, 스물한 살 청년 김창수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 쓰지타(土田)를 죽이고 체포된다. 그는 해주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 1896년 8월 인천감리서로 옮겨져 사형선고를 받는다. 백범 김구와 인천, 그 인연의 시작이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큰사람으로 성장했다. ‘백범일지(白凡逸志)’에는 ‘인천 감옥소에서 인천 개항장을 통해 유입된 신문물을 익히며 항일운동가로서의 사상을 정립했다’고 기록돼 있다. 120여 년이 지난 지금 인천감리서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밀고 들어온 자리에 감리서 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돌아서는데 장희숙 선생이 그늘진 담 모퉁이를 가리킨다. 한때 세상과 감옥 사이에 높다란 담을 쌓던 주춧돌이 일부 남아 숨죽이고 있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1930년대 재판 소장이 살던 집에는 감리서로 오르던 돌계단이 아직 남아 있다. 갇힌 자와 가둔 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 계단을 올랐을까. 무성한 수풀 사이 끊긴 길을 건너, 아득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담 모퉁이에 숨죽이고 있는
인천감리서 주춧돌



인천대공원 백범광장에 있는 백범 김구와 어머니 광낙원 여사의 동상.
1997년 10월, 시민의 성금을 거두어 세웠다.
인천감리서 근처나 축항이 내려다보이는 역사적인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옥에 갇힌 내 아들,
경기 감사가 된 것보다 더 자랑스럽다’



눈물 대신
용기를 준 어머니

백범 김구를 키워낸 어머니 광낙원 여사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는 인천감리서로 이감된 백범 김구를 따라 인천으로 와 옥바라지를 한다. 나라를 위해 몸 던진 자식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으리라. 하지만 그녀는 감옥에 갇힌 아들을 보며 “경기 감사가 된 것보다 더 자랑스럽다.”며 용기를 북돋웠다. 그리고 옥문 앞 객주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며 기꺼이 아들의 옥바라지를 했다.

‘백범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어머니는 감리서 삼문 밖 개성 사람 박영문의 집에 가서 사정을 말씀하시고 그 집 식모로 들어가셔서 이 자식의 목숨을 살리시려 하셨다. 이 집은 당시 인천항에서 유명한 물상객주로 살림이 크기 때문에 식모, 침모의 일이 많았다. 어머니는 이런 일을 하시는 값으로 하루 삼시 내게 밥을 들이게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선사 유항렬의 집 주변 골목에는 객주 집들이 시간을 거슬러 남아 있다. 이 시대 마지막 보부상이 살던 집이 있고, ‘월아천’이라는 음식점 간판을 단 객주 집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고풍스럽다. “우리가 지나온 이 길 어딘가에 광낙원 여사가 일하던 객주 집이 있었을 거예요. 전 이 골목 입구를 ‘시간을 여는 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곳을 ‘옥바라지 골목’으로 이름 붙여 역사적인 명소로 남기고 싶어요.”



광낙원 여사가 백범 김구의 옥바라지를 하던 ‘옥바라지 골목’. 장희숙 선생은 이 골목 입구를 ‘시간을 여는 문’이라고 부른다.

옥바라지 골목 안,
이 시대 마지막 보부상이 살던 집

백범일지 70주년

백범 김구를 만든 인천

용
동
마
루
터
에
서

화
개
동
마
루
터
까
지

‘월하 동이 틀 때에 보니 기껏 달아난다는 것이
감리서 바로 뒤 용동 마루턱에 와 있었다.
천주교당의 뽕죽집이 보였다’

민족의
앞날을 밝힌 길

1898년 3월 9일 밤, 김구는 인천감리서를 탈옥한다. 정문으로 당당히 나
왔다. ‘최후 결심을 한 때였으므로, 누구든지 내 갈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
으면 결단을 내버릴 마음으로 쇠창을 손에 들고 정문인 삼문으로 바로 나
갔다. 탄탄대로를 나왔다’

장회숙 선생은 인하여사문화연구소 양윤모 교수와 함께 수년간 백범 김
구의 탈출 경로를 연구해왔다. 그는 백범 김구가 인천감리서를 나와 건물
뒤편에 있는 내동교회 샛길로 갔을 거라고 추측한다. 당시 중국인 묘지가
있던 길로, 으스스하고 후미져서 사람들 눈을 피하기 좋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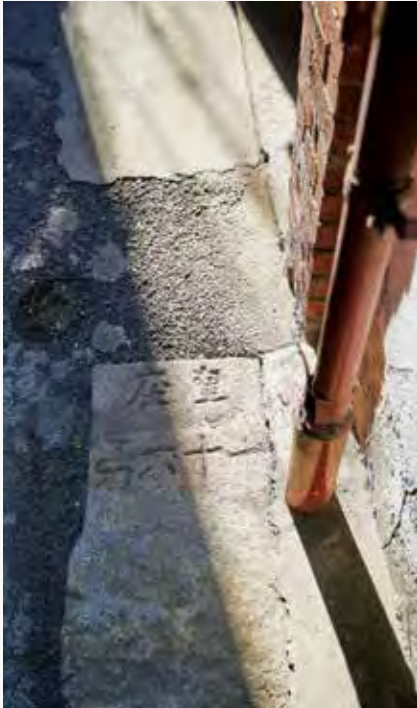
‘월하 동이 틀 때에 보니 기껏 달아난다는 것이 감리서 바로 뒤 용동 마루
턱에 와 있었다. 천주교당의 뽕죽집이 보였다’ 무섭게도 어두운 밤을 헤
치고 새벽빛이 부엌에 밝아 올 즈음, 그는 바닷가를 지나 용동 마루턱에
다다랐다. 장 선생은 백범 김구가 탈출한 다음날 새벽 다다른 곳은 섭도
포구이며, 용동 마루턱에서 본 뽕죽집은 답동성당이라고 추정한다. 그때
그 바닷가는 메워져 육지가 됐다. 백범 김구는 언덕에서 잠시 숨을 고르
며 온갖 상념에 젖었을 것이다. 오로지 조국만을 생각하며 차디찬 밤공
기를 가로질렀을 그를 떠올리면, 지금 온화한 오후 햇살 받기가 미안해
진다.

이후 백범 김구는 율목동을 지나 화개동(현 신흥동)으로 향한다. 지나가
던 모퉁이 인적 드문 골목을 지나 화개동 마루턱까지 함께 해주었다. 세
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높다란 언덕에서 모퉁은 수원, 시흥, 서울로
가는 세 가지 길을 알려준다. 백범 김구는 길을 택한다. ‘나는 서울로 갈
작정으로 시흥 가는 길로 들어섰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옥에서 배운 시
조와 타령을 하면서 부평, 시흥을 지나 그날 당일로 양화도 나루에 다
랐다’ 그가 걸은 길은 훗날 민족의 앞날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됐다.



백범 김구가 용동 마루턱에서 바라보던
천주교당의 뽕죽집(답동성당)

백범 김구가 인천감리서를 나와 밤새 헤맸을 중국인 묘지 터.
지금은 주택가가 들어섰는데,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다
무덤 표석을 발견했다.



강화도의 부자 김주경은 가산을 탕진하며
백범 김구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다, 여의치 않아
탈옥을 설득한다.
훗날 백범 김구는 김주경을 찾아 강화도로 가
지역 인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지금도 ‘황국현 가옥’에 있다.

‘인천 축항은
내 피땀이 배어 있는 곳이다’



백범 김구가 강제 노역을 하던 중동 우체국 앞 일대.
몇 년 전, 이곳에 거대한 일본 의류 기업이 터를 내렸다.
가슴 아픈 역사의 아이러니다.

낮은 데서,
더 강하게

이후 백범 김구는 1910년 11월 독립운동가 안명근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려고 자금을 모으다 관련 인사 160명과 함께
검거된, 이른바 ‘안악 사건’으로 서울에서 옥살이를 하다 1914
년 인천감옥으로 이감된다. 그는 철사로 허리가 묶여 삼사십 명
의 적의군과 함께 인천감옥으로 끌려갔다. ‘무술년(1898) 3월 9
일 한밤중에 옥을 깨뜨리고 도주한 이 몸이, 17년 후에 철사에
묶여서 다시 이곳에 올 줄 누가 알았으랴’

이 시절 백범 김구는 인천항 제1부두인 축항 공사장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다. ‘아침저녁 쇠사슬로 허리를 매고 공사장
으로 출역을 간다. 흙 지계를 등에 지고 10여 길 높은 사다리를
밟고 오르내린다. 불과 반 일 만에 어깨가 붓고 등창이 나고 발
이 부어서 운신을 못하게 된다’ 백범 김구는 힘들어서 바다에
떨어져 죽고 싶었으나, 그러면 같이 쇠사슬을 맨 죄수들도 함께
바다에 떨어지므로 할 수 없이 참고 또 참았다고 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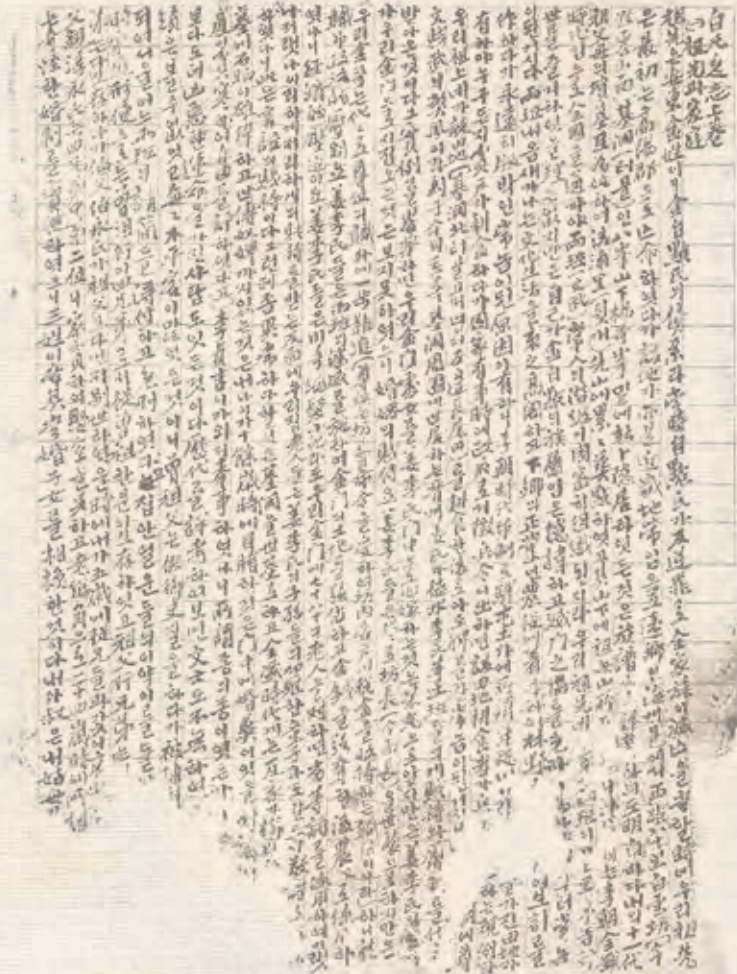
고난 속에서 김구는 자신의 호를 ‘백범(白凡 백정 무지렁이)’이
라 짓고 평생을 낮은 데로 임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직
후 상하이로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조국 광복을 위해
몸을 던진다. 민족 지사로 추앙받으면서도 백범으로 살기를 주
저하지 않던 한 사람, 그리고 그가 밟고 성장했던 땅. 백범일지
에 새겨있 듯, 인천은 오늘 한민족을 있게 한 ‘의미심장한 역사
지대’다.



인
천
축
항
공
사
장

백범일지 속 인천

自叙傳 白凡逸志



인천 옥^獄에 들어갔다...
감옥 뒷담 너머 용동 마루턱에서...

백범일지(白凡逸志)에는 백범 김구의 어린 시절부터 동학에 입문해서 의병 활동을 하던 청년기, 일제 강점기 시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해방을 거쳐 조국에 돌아와 활동한 행적까지 파란 만장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삶 속에는 일제 강점기였던 우리나라 근대의 모습이 보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활약도 담겨 있다. 이 일지 곳곳에 ‘인천’이 언급됐다. 인천은 청년 김창수가 독립운동가 김구로 재탄생하는 데 많은 자양분을 제공했다. ‘국사원판’ ‘백범일지’와 도진순 주해본 ‘백범일지’를 참고한 나남출판사에서 2002년 발행한 백범일지(학술원판)에 나온 ‘인천’을 부분 발췌했다.

발췌 정리 유동현 본지 편집장

독립운동의
증언서이자 유서

일지는 백범 김구가 만리타향에서 변변한 자료 하나없이, 자신과 어머니의 기억에 의존해 기록한 수고(手稿)이다. 1947년 12월 15일 도서출판 국사원에서 아들 김신이 펴낸 초판본을 필두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여 본이 각 출판사에 의해 중간됐다. 백범일지는 전기문학의 현대적 고전으로 독립운동의 증언서다. 중국 상하이와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직을 지내오며 틈틈이 써놓은 이 책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에 보존되어 있던 친필본을 김지림이 윤문해 간행됐다. 항일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생사를 기약할 수 없어 유서 대신,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경륜과 소회를 기록한 만큼 비장감이 넘치는 감동을 준다.

상편은 김인·김신 두 아들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머리말을 1929년 5월 3일 상해에서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권은 백범 김구가 주도한 1932년 한인애국단의 두 차례에 걸친 항일거사, 곧 이봉창 의사의 1·8일왕 저격 의거와 윤봉길 의사의 4·29상해 의거로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 중국 각처로 표류하다가 충칭으로 옮겨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집필한 것으로서 칠순을 앞둔 망명가의 회고기록이 되고 있다.



이 책은 내가 상해와 중경에 있을 때에 써놓은 ‘백범일지’를 한글 철자법에 준하여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끝에 본국에 돌아온 뒤의 일을 써넣었다.

나는 완전한 우리의 독립국가가 선 뒤에 이것이 지나간 이야기로 동포들의 눈에 비추아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행이라 할까 불행이라 할까 아직 독립의 일은 이루지 못하고 내 죽지 못한 생명만 남아서 조국에 돌아와 이 책을 동포의 앞에 내놓게 되니 실로 감개가 무량하다.

나는 우리 젊은 남자와 여자들 속에서 참으로 크고 훌륭한 애국자와 엄청나게 빛나는 일을 하는 큰 인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믿게나와 그와 동시에 그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마다 이 나라를 제 나라로 알고 평생에 이 나라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이니 나는 이러한 뜻을 가진 동포에게 이 ‘범인의 자서전’을 보내는 것이다. (단군기원 4280년 11월 15일 개천절날)

- ‘저자의 말’ 중에서 부분 발췌

인천은
의미심장한
역사 지대

‘인천옥에 들어갔다. 내가 인천으로 이감된 까닭은 갑오경장 이후 외국인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특별 재판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내리 마루에 감리 서가 있고 왼편으로 경무청, 오른편으로 순검청이 있었다. 순검청 앞으로 감옥이 있고 그 앞에 노상을 통제하는 이층 문루가 있다.’

- 첫 번째 투옥, 수감 생활 중

‘어머님은 비록 저 아래 농촌에서 성장하셨지만 모든 일을 잘 감당하셨다. 특히 바느질에 능하셨는데, 무슨 일이 손에 잡혔을까만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감리서 삼문 밖 개성사람 박영문의 집에 들어가서 일의 자초지종을 잠시 이야기하고 그 집 동자꾼으로 써달라고 청하셨다. 그 집은 당시 항내에 유명한 물상객주로서 밥짓고 바느질하는 일이 무척 많았다. 덕분에 하루 세끼 감옥에 밥 한 그릇씩을 갖다 주는 조건으로 고용되었다.’

- 광덕원 여사의 아들 옥바라지 상황

‘이 항구는 가장 먼저 열렸기 때문에 구미 각국인이 와서 살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자들도 있었으며 여러 종교의 교당도 세워져 있었다. 또 우리 사람으로 더러 외국에 장사하러 다녀와 신문화의 취미를 아는 자도 조금은 있던 때다.’

- 옥중에서 신서적 탐독

‘인천옥에서 사형수 집행은 늘 오후에 끌고 나가 우각동에서 목을 매달았다.’

- 우각동은 현재의 동구 금곡동 일대

‘기이하게 생각되는 것은, 경성부 안은 그 전화라는 것이 가설된 지 오래였으나 경성 이외에는 장거리 전화가 인천까지가 처음이요, 그때는 인천까지의

전화가설공사가 완료된 지 사흘째 되는 병신년 8월 26일이었다. 만일 전화 공사가 준공되지 못하였다면 사형이 집행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감리서에서 내려온 주사는 이런 말을 했다. “인천항 내 32명 객주들이 통문을 돌려서 매호에 한 사람 이상 우각동에 김창수 처형 구경을 가되 각기 엽전 한 냥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모아서 김창수의 몸값을 삼자, 만일 그것만으로 안 되거든 부족액은 32명 객주가 담당하여 김창수를 살리자고 작정했었소. 아무러나 김 석사, 이제는 천행으로 살아났소. 며칠 안으로 궐내에서 은명이 계실 터이니 아무 염려 말고 계시오.”

- 인천~경성 간 전화 가설로 사형 집행 정치 상황

‘탄탄대로로 나왔다. 봄날의 밤안개가 자욱한데다가 인천은 몇 해 전 서울구경을 왔을 때 한 번 지나쳤을 뿐이라, 길이 생소하여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에 밤새도록 바닷가 모래밭을 헤매다가 흰히 동이 틀 때 보니 기껏 달아난다는 것이 감리서 바로 뒤 용동 마루턱에 와 있었다.’

얼른 몸을 일으켰다. 하늘이 밝아오고 천주교당의 뽕죽집이 보였다. 그것이 동쪽이리라 짐작하고 걸어갔다.’

- 탈옥 후 인천에서의 도주로 찾기, 천주교당은 지금의 담동성당

‘그 사람은 반가이 승낙하고는 이 골목 저 골목 후미진 길로만 해서 화개동 마루턱까지 동행해 주었다. 거기 올라 동쪽을 가리키며 이리 가면 수원이요 저리 가면 시흥이니 마음대로 어느 길로든지 가라고 일러주었다.’

- 탈옥 후, 도주로를 서울로

‘인천항 5리 밖에 이르니 아침 해가 떠올랐다.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는 호각소리요 부근 산에도 사람들이 올라가 희끗희끗하였다.’

- 탈주로 찾기 상황

‘밤에 탈옥하느라 힘을 썼고 밤새껏 북성고지 모래밭을 헤맨 후 다시 황혼이 되도록 물 한 모금 못 먹었으니 하늘과 땅이 팡팡 돌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 북성고지는 현 인천역 부근 추정

‘새벽 일찍 깨어 좁은 길을 골라서 서울로 향했다. 버리고 개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어느 집 문 앞에 다다라 아침밥을 걸식했다.’

- 버리고개는 부평구 일신동 벌리고개(벌리현)

‘나는 잔여 형기의 2년을 채 못 남기고 서대문감옥을 떠나 인천으로 이감게 되었다. 원인은 내가 제2과장 왜놈과 싸운한 사실이 있는데, 그놈이 비교적 고역이 심한 인천 축항공사를 시키는 곳으로 보낸 것이다.’

- 신민회 사건으로 두 번째 인천감옥 생활

‘감옥 뒷담 너머 용동 마루턱에서 옥중에 갇힌 불효한 나를 보시느라 달마다 우두커니 서서 내려다보시던 선친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 용동 마루턱은 현재 내리교회 부근

‘아침저녁 쇠사슬로 허리를 마주 매고 항구 건설 공사장으로 출역을 갔다. 흙 지게를 등에 지고 열 길 높이의 사다리를 밟고 오르내렸다.’

- 축항(도크) 건설 강제 노역 동원

‘감옥 문밖으로 항구 공사장에 드나들 때 왼쪽 첫 집은 박영문의 물상객주 집이다. 왼쪽 맞은편 집은 그 역시 물상객주인 안호연 집인데 안 씨 역시 나에게나 부모님에게

극진한 정성과 힘을 다 쏟던 노인이었다.’

- 백범 김구 부모를 도운 인천 객주 사람들

‘6, 7월 더위가 심한 어느 날 갑자기 수인 전부를 교회당에 모아서 나도 가서 앉았다.’

- 교회당은 내리교회로 추측

‘이튿날 아침 전화국에 가서 안악으로 전화를 걸어 아내를 불렀다.’

- 현 중동우체국 내 전화 시설

‘비단 서울만이 아니었다. 인천·개성 등 지방 각지에서 임시정부 환영회를 일제히 거행하였다.’

- 광복 후 임시정부 환국 환영

‘그럭저럭民国 28년(1946)을 맞이하자 38선 이남이나마 지방 순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 1차로 인천을 순시하니 인천은 의미심장한 역사적 장소라, 이미 쓴 이야기들을 대강 다시 음미하게 된다.

스물 두 살 때 인천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스물 세 살 때 탈옥 도주하였고, 마흔 한 살 때에는 17년 징역을 받고 인천감옥으로 이감하게 되었다. 17년 전에 탈옥 하였던 그 감옥을 다시 철망에 얹히어 들어가니, 말없는 감옥도 나를 아는 듯 내가 있던 자리는 의구하게 나를 맞아주나 17년 전 김창수는 김구로 이름을 바꾸었고 또한 지나간 세월이 흐른 까닭에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곳에 구속된 몸으로 징역살이를 축항공사로 했다. 그 항구를 바라보니 나의 피땀이 젖어 있는 듯하고, 구속된 이 몸을 면회하러 부모님이 내왕하시던 길에는 눈물 흔적이 남아 있는 듯 49년 전 옛날의 기억이 새롭고 감개무량했다.

감회를 금하지 못하는 중에 인천 순시는 대환영리에 마치고 제 2차로 공주 마곡사를 시찰기 위하여 공주에 도착했다.’

- 광복 후 38선 이남 순회 중 인천 관련 감회



‘백범일지’
종이를 대준
강익하

김창수를 백범 김구로 만든 이들은 인천 사람들이었다. 강화 출신 김주경(金周卿), 인천 시천동 출신 유학자 유완무(柳完茂) 등이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금융인 강익하(康益夏)이다. 백범 김구의 제자인 그는 인천에서 미두로 큰돈을 벌어 후에 대한생명을 창업했다. 무엇보다 그는 백범일지의 종이를 대주었다.

글 정희숙 인천도시지원디자인연구소 대표

백범 김구는 독립 운동가이자 교육자였다. 교육자로서 백범 김구의 출발은 어디였을까? 백범 김구와 인천의 인연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감리서 감옥에 갇힌 의로운 청년 백범 김구는 아버님이 넣어주신 ‘대학’을 읽었다. 이뿐 아니라 감리서 직원이 구해다 준 신(新) 서적을 열심히 읽으며 척양척왜로 왜놈을 때려죽이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 아니라 ‘저마다 배우고 사람마다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다’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감리서 감옥에서 탈옥한 백범 김구가 고향으로 돌아간 후 1900년대 황해도에서 구국 교육 계몽을 하면서 가르쳤던 것은 인천 감옥에서 깨우쳤던 새로운 문물을 전파하는 교육이었던 것이다. (김삼룡 지음, 백범김구 평전에서)

치하포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백범 김구는 1898년 3월 9일 늦은 밤 인천감리서를 탈옥한다. 도주범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던 그는 고향인 황해도 해주로 돌아와 농촌 계몽 운동에 앞장섰다. 1907년에는 재령에 ‘보강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받았는데, 학생 한 명이 강익하(康益夏)였다. 백범 김구에게 한문을 배우던 이 소년은 훗날 인천에서 미두로 큰돈을 벌었고, 해방 후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인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을 설립한다.

1911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로 백범 김구가 구속되자 강익하는 경성법학전문학교(현 서울법대)에 입학했다. 해주지방법원 판임관으로 근무하던 1919년, 3·1운동으로 수

많은 조선인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황해도 연안 출신의 경성여고보생 한 명이 검사정의 질문에 불리한 답변을 하고 있었다. 강익하는 재판에 유리하게 통역을 해주어 소녀가 풀려나도록 했다.

이때부터 강익하는 소녀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는 물론, 귀국해 이화여전에 입학한 후에도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8년 동안의 집념에 감동한 소녀는 결국 결혼을 승낙하고 1928년 자신이 설립한 화광유치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 소녀가 바로 이승만에게 이화장을 제공하고 ‘전쟁고아의 어머니’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휘경학원 설립자 황온순이다. 3·1운동 얼마 후 강익하는 돌연 법조계를 떠나 인천 미두장에 뛰어들었다. 중매점을 개업해 큰돈을 벌었으며 1927년에는 ‘서선전기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상무취체역으로 부임했다. 1932년 조선취인소가 출범하자 인천에는 강익하 상점을, 경성에는 금익증권을 개점했다.

현 KB국민은행(중구 제물량로·해안동)
부근에 있던 강익하 상점



강익하 상점을 소개한 신문 광고

강익하는 ‘기정미총람’과 ‘익정보’를 발간하며 일본인 미두업자에 비해 한발 앞선 정보력과 영업력을 보였다. 미두와 주식으로 큰돈을 번 강익하는 수해 때마다 기부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 등 학교와 사회에 기부도 많이 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강익하는 3·1동지회를 결성하고 귀국한 백범 김구를 보필했다. 상공회의소 부의장 시절에는 이승만에게 정치 자금 500만 원을 제공하고 백범 김구에게도 300만 원을 제의하기도 했다. 강익하는 홍콩에서 뷰익 48년형 자동차를 구입해 백범 김구에게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했다. 무엇보다 홍콩에서 백범일지를 인쇄할 용지를 구입해 주었다.

백범 김구가 사망하자 그는 장례위원을 맡아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미두 재벌 강익하는 1946년 최초의 민간보험사인 대한생명을 설립하고 최대주주 겸 초대 사장으로 부임했다. 회사명은 3·1운동 당시의 ‘대한독립만세’를 떠올리며 대한생명으로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익하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대한증권거래소의 개장을 보지 못하고 2개월 전인 1956년 1월 눈을 감았다.

지금까지 인천에서의 미두왕은 일확천금으로 조선 제일의 미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함께 살 집이 채 지어지기도 전에 미두로 망한 반복창을 기억한다. 그러나 강익하는 투기성 짙었던 미두계를 과학적인 통계와 치밀한 분석으로 석권했다. 일본인들에 맞서 미두와 증권계를 주름잡으며 증권시장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한편, 어려운 조선 사람들 편에서 서서 활동하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정부 수립은 물론 보험 등 경제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당시 백범 김구의 제자 강익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이었다. 인천감리서 감옥에서 싹튼 백범 정신이 자신의 제자인 강익하를 통해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열매를 맺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모두의 대장이 되다

“해야 해서 하는 것 이다”

청년, 대장 김창수가 되기까지

백범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인천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인천 개항장을 통해 유입된 신문물을 익히며 항일운동가로서의 사상을 정립했다’고 이야기했다. 영화 ‘대장 김창수’는 평범한 청년이 민족 지사(志士) 백범 김구가 되기까지, 인천 감리서 안에서 펼쳐진 625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주)키위컴퍼니

사형집행 3일 전, 목숨 살린 전화 한 통

“나는 그날 짐승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다.” 1896년 황해도 치하포, 스물한 살 청년 김창수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 쓰지타(土田)를 죽이고 체포된다. 그는 재판장에서 국모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라고 소리치지만, 해주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 인천감리서로 옮겨져 사형선고를 받는다. 하지만 사형집행 3일 전, 고종황제가 전화로 사형을 중지하는 어명을 내려 목숨을 구한다. 하늘이 도왔다. 경성부에서 인천까지 전화가 가설된 지 3일 만의 일이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도 사형집행 날 살아났고, 노벨 평화상과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도 사형을 앞두고 새 삶을 얻었다. 다시 태어난 그날 이후 김창수는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은 홍모(鴻毛)와 같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목숨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기에, 그 어떤 위험이 닥쳐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헤쳐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연태 감독은 김창수가 자신의 삶을 버리고 나라를 택한 순간, 그 숭고한 마음을 영화에 담고 싶었다.

대장
김창수



가장 낮은 곳에서,
민족의 대장으로

영화 ‘대장 김창수’는 평범한 청년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625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감독은 백범 김구의 일대기 중 널리 알려진 상하이 임시 정부 시절이 아닌, 인천에서의 감옥살이 시절에 주목했다. 충무로 이야기꾼으로 소문난 그는 소설가 김탁환과 함께 개항장 배경의 장편소설 ‘아편전쟁’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가 연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시대에 대한 공부였다. 옛 지도를 들고 인천감리서가 있던 자리와 개항장 거리를 직접 걸었다. 김창수가 감옥으로 끌려간 거리를 확인하고, 그가 느꼈을 심정을 헤아려봤다.

“결코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사람의 이야기다.” 영화는 백범 김구가 있기 전, 청년 김창수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이끌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감동 있게 그린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 “죽은 자는 있는데, 죽인 자는 없는 것이 지금 이 나라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던 그의 목소리가 가슴을 울리고 이 시대를 관통한다.



“결코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사람의 이야기다.”

‘백범 김구’ 만든
감옥에서의 625일

영화 ‘대장 김창수’에는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스크린을 꽉 채우며 존재감을 발휘한다. 주연을 맡은 배우 조진웅은 당당한 풍채와 강인한 눈빛까지 김창수를 쏙 빼어 닮았다. 그는 고집 세고 혈기만 넘치던 청년이 민족의 대장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 민족의 위인을 연기한다는 부담감에, 역사 자료를 찾아보며 본인의 의식과 의지부터 굳건히 다져나갔다. 천만 분의 일도 감당할 수 없겠지만, 가슴 아픈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다. 연기에 몰입하다 보니, 어느 순간 홀린 것처럼 진짜 그 상황이 되어버렸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의 오열하는 연기엔 모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단지 연기일 뿐인데도 무섭고 겁이 났다. 그런데 김창수는 이 모든 일을 실제로 겪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며 뜨거운 감정을 전했다. 그는 컷 소리가 난 후에도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배우 송승헌은 데뷔 21년 만에 첫 악역에 도전했다. 그는 나라를 버리고 일본 편에 선 인천감리서 서장 강형식 역을 맡아 극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그간 본적 없는 송승헌의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이 낮설지만 어색하지 않게 다가온다.

1896년 조선시대 말, 인천감리서는 모든 것이 극명하게 부딪히는 혼돈의 장이었다. 일본 편에 선 감리서장 강혁식은 말한다. “감옥이 아닌, 지옥이 될 거다.” 하지만 김창수에게 그곳은 지옥이 아니었다. 그는 개항장을 통해 들어온 신문물을 익히고 글을 가르치며, 항일운동가로서의 사상을 바로 세웠다. 못 배우고 못 가졌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조선인들을 보며, 현실에 눈 뜨고 변화를 꿈꾸었다. 그리고 훗날 청년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로 다시 태어난다.



대장 김창수 (MAN OF WILL, 2017)

2017. 10. 19 개봉

감독 이원태

배우 조진웅(김창수), 송승헌(강형식)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세계적 패션 감각, 인천에서 시작한다

글로벌 패션계를 선도하고 있는 캘빈 클라인, 마이클 코어스, 노티카 대표 데이비드 추의 공통점은? 바로 세계적 패션 명문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출신이라는 점이다. 패션 학도들에겐 ‘꿈의 학교’라 불리는 FIT. 그 FIT가 미국 뉴욕, 이탈리아 피렌체와 밀라노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로 인천 송도를 선택했다. 2017년 9월, 인천이 세계적 감각의 새 옷을 입었다.

글 김윤경 본지편집위원 사진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FIT 제공



리사 도노프리오 한국뉴욕주립대 FIT 패션디자인학과장(위)
인천글로벌캠퍼스 안에 자리 잡은 FIT(아래)

인천과 뉴욕을 오가며 세계 패션을 배운다

지난 10월 19일, 송도에 위치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한국뉴욕주립대에서 FIT 개교 축하 행사가 열렸다. 이번에 울려 퍼진 축포는 전 세계를 통틀어 세 번째, 아시아 지역으로 범위를 좁히면 첫 번째다. 1944년 설립된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UNY) FIT는 패션 분야의 글로벌 인재와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 FIT는 패션디자인학과와 패션경영학과를 운영한다. 지난 8월 25일 입학식을 치른 가을학기 신입생은 디자인학과 15명, 경영학과 37명 등 모두 52명이다. 이들은 한국뉴욕주립대에서 패션 전문 과정 2년을 거쳐 준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뉴욕 홈캠퍼스 또는 이탈리아에서 추가 2년 과정을 마친 뒤 학사 학위를 취득한다. 뉴욕 홈캠퍼스가 직접 입학 사정을 맡았고, 수업은 홈캠퍼스와 동일한 교수진과 교육 과정이 제공된다. “FIT가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운영할 때는 시설적인 면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컴퓨터, 재봉틀, 기타 모든 시설이 뉴욕과 동일해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 그 점에서 아주 탁월했어요. 더군다나 뉴욕 FIT에는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생각했죠.” 리사 도노프리오(Lisa Donofrio) 한국뉴욕주립대 FIT 패션디자인학과장은 이미 송도에 SUNY Korea라는 뉴욕주립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FIT에서도 한국행을 결정하기 쉬웠을 거라고 덧붙인다.



인천글로벌캠퍼스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개교

자유롭지만 철저한
현장 위주 수업

FIT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과 함께 뉴욕 패션스쿨의 양대 산맥으로 손꼽힌다. 특히, 다수의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를 배출한 학교로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졸업 후, 패션업계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 FIT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와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입학 후 2년 동안은 패턴 만들기, 재봉틀로 능숙하게 옷 만들기,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하기 등의 기본 능력을 실습 위주로 가르치고 3,4학년에는 니트웨어, 정장, 여성복, 아동복 등 세분화된 교육을 한다. 뉴욕 FIT 주변 다

른 패션스쿨 학생들이 FIT의 기본 수업을 이수하려고 하는 이유도 FIT만큼 철저하게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옷의 라인은 섬세해야 합니다. 재단은 어떻게 하는지, 바느질한 실은 어떤 식으로 당기는지, 시접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모든 과정마다 라인을 염두 해야 합니다.” 리사 도노프리오 교수는 매 수업마다 옷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따라하면서 안목과 실력을 넓혀나간다. 현장 실습 위주의 특화 교육 과정 덕분에 FIT가 세계의 유명 디자이너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한국에서 미래 패션리더를 꿈꾸는
패션피플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FIT는 주립 대학으로 학비가 비교적 저렴해 미국에서도 해마다 많은 지원자가 몰린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신의 꿈을 위해 준비해온 열정적인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FIT에 입학하기란 쉽지 않다. 원활한 현장 교육을 위해 입학하기 전부터 재봉틀, 바느질, 재단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갖춰야 한다. FIT에서 요구하는 포트폴리오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입학을 위해 몇 년간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학원에서 기술적인 면을 습득하기도 한다.

“FIT 입학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17살부터입니다. 19살부터는 영어와 포트폴리오를 중점적으로 준비했어요. FIT에서 공부할 수 있어 기쁘긴 한데, 상상 이상으로 과제가 많아서 조금 힘드네요.” 이다은(21, 대전) 양은 졸업 후, 미국에서 취직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단다.

반대로 한국 문화가 궁금해서 고향인 뉴욕을 떠나 인천을 택한 학생도 있다. “원래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매력에 본교 홈페이지에서 한국 캠퍼스를 보자마자 지원했습니다.” 제시카 루이스(22, 뉴욕) 양은 뮤직비디오 의상디자이너가 꿈이다. 다양한 뮤직비디오를 선보일 수 있는 한국에 더 끌린 이유다.

패션은 트렌드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FIT는 오랫동안 현업에서 활동한 수준 높은 교수진이 실무와 교육을 병행하며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이미 패션계 요직에 자리 잡고 있는 FIT 출신 졸업생들 덕분에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젠, 패션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더 이상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졌다. 인천이 세계적 감각의 새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입학 문의 : ☎ 626-1162 / fit@sunykorea.ac.kr

4교 4색,
IGC Campus Story

“한국으로 유학 온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등지를 튼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는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등 그 이름이 곧 자부심이 되는 세계 유수 대학 캠퍼스가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앞으로 지속적인 해외 명문 대학 유치를 통해 명실상부 동북아 글로벌 교육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2012년 스톤브룩이라는 공대를 시작으로 뉴욕주립대의 첫 글로벌캠퍼스로 문을 연 한국뉴욕주립대는 학부와 석박사를 모두 갖춘 최초의 미국대학교. 스톤브룩은 기술경영학과, 컴퓨터과학과, 기계공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 경영학과 5개 전공을 운영 중이며, FIT는 패션디자인학과와 패션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 ☎ 626-1114 / www.sunykorea.ac.kr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미국 버지니아 최대 주립 대학인 조지메이슨대학교의 한국 캠퍼스. 경영학과, 재무금융학과, 회계학과, 경제학과, 국제학과,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 등 총 6개 학과가 개설·운영 중이며, 2018학년도 봄학기에는 석사 과정인 ‘시스템공학과’가 개설된다. 문의 : ☎ 626-5000 / masonkorea.gmu.edu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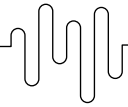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학, 심리학, 영화영상학, 도시계획학 등 4개의 학사 학위 과정과 공중보건학, 생명의료정보학과 등 2개의 석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과 운영 전반을 유타대학교 본교에서 직접 관리해 세계적으로 검증 받은 본교 캠퍼스의 교수진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 문의 : ☎ 626-6000 / asiacampus.utah.edu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국내 최초 유럽 대학교 캠퍼스다. 분자생명공학, 환경공학, 식품공학의 학위 과정이 운영 중이다. 4학년 1학기에 벨기에 본교에서 수학할 기회가 주어지며, 졸업 시 본교와 동일한 학위 취득뿐만 아니라, 본교 석사 입학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연중 2회(봄학기·가을학기) 입학이 가능. 문의 : ☎ 626-4000 / www.ghent.ac.kr



‘인천’ 노래하는 가수 나유미



4분의 4박자 ‘굿모닝 인천’

0:59 -1:31

노래 / 나유미 사곡 / JY KIMM



한번 듣고 나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경쾌한 트로트풍의 노래 ‘굿모닝 인천’. 인천을 소재로 한 노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가운데, 이제 곧 출시될 ‘신포동 블루스’라는 음반은 반 이상이 인천에 관한 노래로 채워져 있단다. 더군다나 ‘신포동 블루스’에 수록된 노래는 모두 인천의 한 대형교회 목사의 작품이라고. 추운 날씨 속 따뜻한 노래로 인천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는 가수 나유미(본명 나경화) 씨와 송의감리교회 이선목 목사를 만났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굿모닝인천, 떠나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 모두 새로운 기대로 부푼다, 푸른 하늘 저 멀리
날개를 펴보자, 인천에 희망을 꿈꾼다~

우연히 이룬
어릴 적 가수의 꿈

‘굿모닝 인천, 굿모닝 인천, 인천은 아침이 좋다, 예쁜 섬이 많아서 사람들도 예쁘다, 그 맘에 바다와 하늘을 담는다,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이 빛난다, 그들은 언제나 환하게 웃는다, 오오오 내 사랑 아름다운 항구, 오오오 내 친구 난 거기서 살리라 굿모닝 인천, 떠나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 모두 새로운 기대로 부푼다, 푸른 하늘 저 멀리 날개를 펴보자, 인천에 희망을 꿈꾼다’ 희망적인 느낌을 물씬 담은, 경쾌한 에너지가 넘치는 ‘굿모닝 인천’을 부르는 가수 나유미(48) 씨. 그녀의 꿈은 어릴 적부터 가수였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야금을 배웠던 그녀는 국악예술고등학교 1학년 시절, 가수의 꿈을 간직한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기념음반이라도 내주겠다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오아시스 레코드사를 찾게 된다. 그 자리에서 기획사의 눈에 띄어 우연히 오디션을 보게 되고, 후에 송대관의 ‘짹하고 해뜰 날’을 작곡한 신대성 선생과 ‘찬찬찬’을 작곡한 김병걸 선생으로부터 사사를 받는다. 결국,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스카우트 되어 음반을 발매하게 됐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녀는 ‘바보 바보’라는 타이틀곡으로 혜성처럼 등장해 주현미의 뒤를 이을 트로트 가수라는 극찬을 받았다.



‘굿모닝 인천’ 노래를 작사 작곡한 이선목 목사(왼쪽)와 가수 나유미 씨(오른쪽)



화제의 인물

‘인천’ 노래하는 가수 나유미

가족으로 이뤄진 ‘나경화 국악 CCM 패밀리’.
가야금 전공 나경화 씨, 해금 전공 딸 배화 양, 피리와 태평소,
타악기를 전공한 남동생 나원일 씨, 성악가 김동규 씨의 음악캠프
피아노 반주를 맡고 있는 올케 고지혜 등
가족 모두가 음악 재원이다.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한 가수의 길

중앙대 음악대학에서 가야금을 전공한 나유미 씨는 대학교 2학년 때 2집 ‘여자의 브루스’를 내고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가 부른 ‘바보 같은 여자’는 히트를 쳤고, 가요계의 샛별로 떠올랐다. 방송 출연도 했다. 김지연, 송대관, 송창식과 대학교 축제마다 불려 다녔고, 퓨전국악그룹 ‘슬기둥’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돌연 가수 생활을 접었다. “스물 다섯이던 1994년에 결혼을 했는데,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딸 배화가 세 살 무렵이던 1997년엔 먹을 쌀도 없고, 잘 곳도 없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오랜 시련 가운데 그녀는 신앙에서 새 힘을 찾았다고 한다. 2015년 자신의 신앙을 노래한 3집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발표하면서 다시 가수의 길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대의미션 파송 선교사로 복음을 담은 곡을 발표해 교회와 기독교 무대에 서기도 했다. 때로는 직접 가야금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이화여대에서 해금을 전공하고 있는 딸 배화 양과 함께 무대에 설 때도 있었다. 그러다 2015년 인천 송의감리교회에서 딸 배화 양과 남동생 나원일 음악감독, 올케 고지혜 씨 등 4인조로 구성된 ‘나경화와 국악 CCM 패밀리’로 공연을 하게 되고, 그 인연으로 ‘굿모닝 인천’ 노래를 만든 이선목 목사를 만나게 된다.



따뜻한 인천 노래를
만드는 목사

“목사님이 그동안 꽤 많은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드셨더라구요. 만드신 곡 중에 인천에 대한 노래도 있었는데, 들으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들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래를 만드는 인천 송의감리교회 이선목 목사. 그렇다고 CCM 가수도, 작곡을 전업이나 부업으로 하는 목사도 아니다. 오롯이 목회에만 전념해 온 천상 목사다. 이 목사에게 노래는 목회의 한 부분이고, 흐름을 같이 한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와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행사에 사용될 노랫말을 쓴다. 여기에 곡을 붙이고 노래까지. 이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해왔다. 그래서 이 목사를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는 ‘싱어송라이터’. 지금까지 무려 80여 곡을 썼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물포 고등학교 시절부터 중창단, 합창단에서 활동했던 경험 덕분에 노래가 늘 친근했었습니다. 나고 자란 곳이 인천이라 당연히 인천엔 관심이 많죠.”



이선목 목사는 본인이 만든 노래로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콘서트 이름도 ‘말씀 콘서트(THE WORD CONCERT)’다.

“인천이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천에 대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천이 친근감 있는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노래하는 엽서’를 제작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읽으면 악보와 함께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어느 날, 매달 교회로 배달된 책자 ‘굿모닝인천’을 보고서 ‘굿모닝 인천’이란 곡을 써보자고 생각했다는 이선목 목사. 그래서 어릴 적 추억을 고스란히 담았던 인천의 노래를 하나로 묶어 ‘신포동 블루스’를 제작하게 됐다고.

“인천이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천에 대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천이 친근감 있는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목 목사의 마음엔 늘 노래 꽃이 핀다. 추운 날씨가지만, 따뜻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노랫말을 쓴다.

“유명한 가수보다는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는 유명해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노래를 부르는 자체가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목사님을 통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인천 노래가 많이 불려 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노래’하면 ‘굿모닝 인천’이 떠오르도록 가수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나유미 씨.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달라고….



‘신포동 블루스’ 수록곡
신포동 블루스 / 굿모닝 인천 / 짜장면 한그릇 /
헬로 월미도 / 당신 진짜 바보야 / 자기 어디서 뭐해 /
내게 돌아와줘요 / 월미도에서

CULTURE
CALENDAR

12月

01.

박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전석 1만 원
☎ 810-8505

02.

플립소오키스트라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010-2602-4420

판타지뮤지컬 겨울왕국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 원
☎ 1666-7584

03.

인옴챔버오케스트라의
VIRTUOSO 초청콘서트
‘현을 위한 세레나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888-8700

인천시민하모니카양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1만 원
☎ 010-9025-7384

04.

어린이 체험전 ‘헬로 브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아동 2만 2천 원, 성인 1만 7천 원
☎ 070-5102-6037
*12월 4일(월)~2018년 2월 24일(토)

09.

2017 십센치 & 자이언티
CONCERT -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9만 9천 원, R석 8만 8천 원,
S석 6만 6천 원
☎ 1566-6551

인천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해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 원
☎ 1588-2341

2017 로비음악회 12시 15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로비
오후 12시 15분
전석 무료
☎ 500-2000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R석 8만 원, S석 7만 원, A석 6만 원,
B석 3만 원
☎ 500-2000

10.

인천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해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 원
☎ 1588-2341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3시
R석 8만 원,
S석 7만 원,
A석 6만 원,
B석 3만 원
☎ 500-2000



12.

인천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해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 원
☎ 1588-2341

13.

인천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해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 원
☎ 1588-2341

14.

인천시립합창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헨델의 ‘메시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2만 원, S석 1만 원, A석 7천 원
☎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해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 원
☎ 1588-2341

15.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69회 정기연주회
‘주제, 그리고 고정악상의 유희’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해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 원
☎ 1588-2341

16.

2017 김동규 송년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2만 원, R석 10만 원, S석 7만 원
☎ 888-9911

인천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해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 원
☎ 1588-2341

17.

클래식시리즈 6-
포르테 디 콰트로
전국투어 콘서트
‘클라시카’
in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VIP석 10만 원,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제75회 정기공연
‘해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2만 원
☎ 1588-2341

18.

파리나무소년합창단 초청 공연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후 7시 30분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
☎ 460-0560



19.

2017 보육교직원과 함께하는
자선송년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초대
☎ 010-5046-6154

20.

인천교사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초대
☎ 438-6040

2017 커피콘서트X
윤석철 트리오
‘재즈인 듯 재즈 아닌,
재즈의 진화’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7시 30분
전석 1만 5천 원
☎ 1588-2341



21.

손준호X김소현 콘서트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무료
☎ 899-1517

22.

인천시립무용단
‘무용교실 수료발표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무료
☎ 438-7774

23.

이은결의 ‘THE ILLUSION’ -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30분
R석 7만 7천 원, S석 6만 6천 원
☎ 1566-6551

인천시립무용단 제36회
I-Dance ‘인천을 빛낸 별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5천 원
☎ 1588-2341

2017 크리스마스 특집
‘장사익 콘서트 &
뮤지컬 갈라 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7시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
☎ 580-1135

24.

이은결의 ‘THE ILLUSION’ -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30분
R석 7만 7천 원, S석 6만 6천 원
☎ 1566-6551

25.

이은결의 ‘THE ILLUSION’ -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R석 7만 7천 원, S석 6만 6천 원
☎ 1566-6551

27.

인천시민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인천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 438-6040

아카펠라그룹 ‘보이쳐’의
연말 가족 콘서트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1시
전석 1천 원
☎ 460-0560



28.

경인방송 송년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무료
☎ 830-0652

부평아트센터 송년음악회 김완선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R석 8만 원, S석 7만 원, A석 6만 원,
B석 4만 원
오후 8시
☎ 500-2000



30.

2017 양희은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8만 8천 원, R석 7만 7천 원,
S석 6만 6천 원
☎ 1566-6551



바다탐험대 옥토포 -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전석 5만 원
☎ 1566-6551

3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야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0시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



바다탐험대 옥토포 -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전석 5만 원
☎ 1566-6551

이달의 展

2017 인천예술대전 제18회 인천광역시
미술전람회 및 초대작가전

11월 28일~12월 4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전시실

소은(蘇恩) 이남래 개인전

12월 2일~12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인천관광사진전

12월 5일~11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2회 부평역사 소품물 사진동우회전

12월 5일~11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8회 현대조형예술회전

12월 5일~11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2017년 제77회 인천미술협회원전

12월 12일~18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전시실

청소년(수험생)을 위한 ‘디지털 서양 미술사 전’

11월 15일~12월 17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성인문예 시화전

12월 15일~26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인천미우회 10주년 기념 정기전
‘지난 10년 우리들 이야기’

12월 19일~25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명 아트크루전

12월 19일~25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제49회 인천사생협회정기전

‘살기 좋은 내고장 인천’ 풍광전
12월 19일~25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인천공예명장과 함께하는 전통공예전

12월 26일~1월 1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서예 등(燈)축제 전

12월 26일~1월 1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드림포커스클럽 정기전

12월 26일~1월 1일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아듀 2017 연말 공연

‘올해도 수고했어요’ 연말을 따뜻하게 감싸는 선물

“이번 연말엔 무엇을 하세요?” 2017년, 올해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기분.
아쉬우면서도 왠지 마음이 설레고 들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 해의 끝을 의미 있게 마무리 지을 연말 공연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연말의 ‘커피콘서트’ 한잔

윤석철 트리오의 ‘재즈인 듯 재즈 아닌, 재즈의 진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커피콘서트’는 매달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입니다. 전석 1만 5천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과 갓 뽑은 커피는 커피콘서트만의 매력. 재즈 트리오인 ‘윤석철 트리오’는 미니멀한 편성으로 최고의 인터플레이를 펼칩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들은 신곡을 포함한 대표곡과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캐럴과 팝송을 그들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들려줍니다. 감미로운 재즈 선율 속에서 연말 분위기에 흠뻑 젖어보세요.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12월 20일(수) 오후 2시, 7시 30분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 5천 원



크리스마스면 언제나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의 전령사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고전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와 무용가 마리우스 피티파가 1892년 초연한 이래, 매년 연말이면 전 세계 관객들을 찾아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부평아트센터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무대. 눈 내리는 겨울밤, 소녀 클라라와 호두까기 인형의 꿈같은 하룻밤으로 초대합니다. 감동으로 시작해 탄성으로 끝나는 시간을 약속합니다.

문의 및 예매 ☎ 500-2000
일시 12월 9일(토) 오후 5시, 12월 10일(일) 오후 3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8만 원, S석 7만 원, A석 6만 원, B석 3만 원



나를 위한 작은 연말 선물

아카펠라 그룹 보이쳐의 ‘연말 가족 콘서트’

나를 위한, 작은 연말 선물. 남동소래아트홀에서 마련한 마티네 콘서트 ‘마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실’가는 마음으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소소하지만 빛나는 행복을 누리보세요. 연말의 ‘마실’ 무대에는 국내 최초의 혼성 아카펠라 그룹 ‘보이쳐’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보이쳐’는 2008년 IOC가 주최한 ‘스포츠&싱잉 콘테스트’에서 세계 1위를 수상한 국가대표 아카펠라 그룹입니다. 보이쳐의 무대로 남은 스트레스를 날리고, 다가올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세요.

문의 및 예매 ☎ 460-0560
일시 12월 27일(수) 오전 11시
장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티켓 1천 원(전화 예매, 현장 매표)



종교를 넘어선 음악

인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헨델의 ‘메시아’

인천시립합창단이 12월 정기연주회를 맞아, 고전음악의 진수 헨델의 ‘메시아’를 선보입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종교적 믿음의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연말이면 전국의 교회와 성당에서 울려 퍼집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은 이번 연주회에서 바로크 시대 악기들로 재현한, 한국에서는 듣기 힘든 원전연주 전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크음악 전문 연주단체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과 소프라노 이윤정, 알토 이아경, 테너 김세일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함께 하는 무대로 초대합니다.

문의 및 예매 art.incheon.go.kr, ☎ 1588-2341
일시 12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2만 원, S석 1만 원, A석 7천 원



1+1 크리스마스 선물

‘장사의 콘서트&뮤지컬 갈라쇼’

2017년 12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찾아옵니다. 올겨울, 서구문화회관은 연말 선물로 ‘장사의 콘서트 & 뮤지컬 갈라쇼’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이 우리 민족 고유의 가락을 애잔한 정서로 노래합니다. 다음 무대에는 뮤지컬계의 황태자 마이클 리가 ‘시카고’ ‘미스 사이공’ 등 유명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입니다. 특히 맑고 청아한 음색의 한국 대표 소프라노 강혜정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가 1, 2회 공연 모두 함께하며 특별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문의 및 예매 ☎ 580-1150
일시 12월 23일(토) 오후 4시(장사의 콘서트), 7시(뮤지컬 갈라쇼)
장소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2층) 3만 원



미리 보는 인천도시역사관

○ ○

인천에 또 하나의 박물관이 들어선다. 개항 이후 근대 도시로 출발해 인구 300만의 대도시로 도약한 인천의 도시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천도시역사관’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시립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팩스마트시티’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글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부장 사진 인천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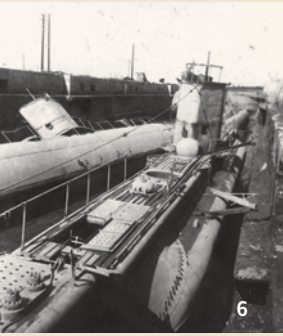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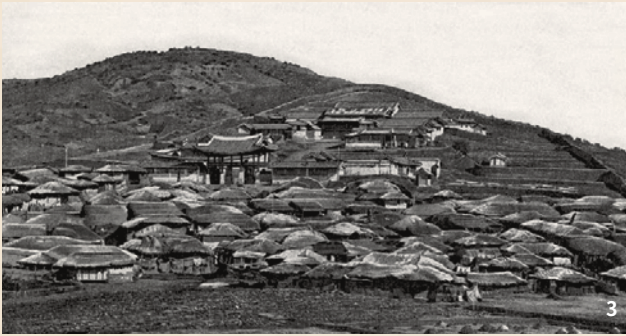


왜 인천도시역사관인가?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컴팩스마트시티’는 지난 2009년 8월 인천세계도시축전 당시 ‘인천도시계획관’으로 문을 열었다. 그해 10월 국제도시 인천의 이미지와 미래도시의 비전 등을 함축적으로 담아낸다는 의미에서 ‘컴팩스마트시티(Compact Smart City)’로 관명을 변경했다. 개관 후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해 오다 2014년 1월부터 시립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의 이름은 대중에게 그 성격과 정체성을 드러내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어야 한다. 하지만 컴팩스마트시티라는 이름에서 관광객은 물론 인천 시민조차 그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립박물관이 운영을 맡으며 관명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계속됐고, ‘인천도시역사관’으로 결정하면서 이제 시의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어떻게 바뀌는가?

인천도시역사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전시 내용도 크게 달라진다. 시립박물관에서는 전체적인 주제를 ‘인천 도시 역사의 변화 과정’으로 정한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친 전시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개항 이후 근대 도시로 출발한 인천이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해 왔는지를 담아낼 계획이다. 그에 따라 1층 근대 도시관, 2층 현대 도시관, 3층 미래 도시관으로 층별 테마를 설정하고, 우선 지난 11월 근대 도시관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다. 근대 도시관은 1883년 개항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인천의 확장과 변천 과정을 전시한다. 근대 도시로 성장했던 인천의 도시 성격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1부 개항도시, 2부 진센과 인천-도시의 양면, 3부 군수공업도시로 세분화했다. 1부에서는 개항 후 내동에 자리했던 인천감리서를 중심으로 인천을 근대도시로 건설하고자 했던 조선 정부의 의지와 그 과정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한일병합 후 식민통치의 당위성을 인천의 근대화에서 찾으려 했던 일본의 야욕을 전시하며, 마지막 3부에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군수기지로 이용됐던 인천의 모습을 다루게 된다. 아울러 기존 모형 위주의 전시에서 탈피하여 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근대 유물을 전시해 박물관의 모습을 갖춰 갈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시 꾸며지는 1층 근대 도시관은 12월 5일부터 일반에 공개되고, 의회에서 관명 변경이 승인되면 2018년 1월부터 ‘인천도시역사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현대 도시관’이 될 2층 전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층 전시장의 주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미래 도시관’ 또는 ‘도시 생활관’으로 꾸밀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도시역사관으로 새 출발하는 내년부터 이름에 걸맞은 인천의 도시사 및 도시생활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매년 도시와 관련된 연구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특별전으로 개최할 것이다. 올해 기획한 ‘인천 사람의 소울푸드’처럼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개항 후 근대 도시로 출발해 인구 3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인천의 도시 역사를 담아 낼 ‘인천도시역사관’의 새로운 모습과 활동을 기대해 본다.

- 1. 인천도시역사관으로 이름이 바뀔 컴팩스마트시티 전경
- 2. 컴팩스마트시티 전시실 내부
- 3. 개항장의 중심이었던 인천감리서
- 4. 조계의 경계를 표시했던 각국조계석
- 5. 일본이 식민통치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던 인천 축항 기공식
- 6. 군수공장 만석동 조선기계제작소에서 생산했던 잠수함

NEWS BRIEF



이런 공장 보셨어요? ‘아름다운 공장’ 2곳 선정



(주)디에스이(왼쪽) / (주)이너트론(오른쪽)

회색빛 딱딱한 건물, 먼지가 날리는 어둡고 우중충한 분위기... 과거 공장의 이미지는 벗어버리자. 인천 공장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 우리 시는 공장은 낡고 지저분한 데다 위험하다는 기존의 관념을 깨는 미(美)를 최우선으로 기술·경영·안전 분야의 능력까지 갖춘 곳을 찾아 지원하는 ‘아름다운 공장’ 선정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11월 21일 진행된 ‘제2회 2017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에서 LED 조명 및 전자부품기업 ‘(주)디에스이’와 통신부품기업 ‘(주)

이너트론’을 올해의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했다.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조명기업 디에스이는 신사옥 건축시 화재에 강한 알루미늄판넬과 유리를 주 소재로 사용하고 반짝이는 외관에 야간조명을 연출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나눔과 배려’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며 아름다운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통신부품 수출기업인 (주)이너트론의 사옥은 큐브 형태의 외관과 독특한 색상을 자랑하며 근로자 휴게공간과 카페, 자연채광을 즐길 수 있는

중정, 곳곳에 산재한 소규모 회의실과 R&D센터, 넓은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02년 창사 이래 자체 특허기술이 116건에 달하고, 직원들의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디자인개발 우선 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14개 기업지원 정책에서 우선 지원 및 우대(가점) 혜택을 부여한다. 문의 : 시 산업진흥과 ☎ 440-4264

영종지구에 카지노 리조트 ‘인스파이어’ 내년 착공

영종지구에 2021년까지 카지노 복합 리조트 3곳이 들어설 전망이다. 인천시장은 지난 11월 12일(현지 시각) 미국 출장 중 코네티컷주 모히건 선 컨벤션 센터에서 인스파이어리조트 조성 협력 약정에 서명했다. 인스파이어리조트 사업자인 미국 MGE그룹은 협약에 따라 내년 2월 중구 운서동 2955 국제

업무지역 105만 8천㎡ 사업 부지에서 리조트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스파이어리조트는 올해 5월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 올해 9월 착공한 시저스코리아리조트와 더불어 영종지구에서 카지노 복합 리조트 ‘3국 시대’를 열게 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343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팔 걷는다

우리 시가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점 사업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2일 제5차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열고, 2018~2022년 5년간 4개 분야, 14개 단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시티 투어 버스 경유지에 부평지하상가 모래내시장 등 원도심 명소를 포함하고,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원도심 밤 마실 프로그램’을 개

발한다. 주민단체나 시민단체가 직접 설계한 여행 프로그램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인천시민여행학교’도 운영하며, 공모를 통해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 미래유산 프로젝트, 인천형 관광 두레 사업, 원도심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 등도 추진한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43



영종~청라 제3연륙교 2020년 착공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인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를 2020년 착공한다. 2025년까지 약 5천 억 원을 들여 건설할 이 교량은 서구 원창동과 중구 중산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길이 4.66km) 규모로, 내년 실시설계를 시작한다. 제3연륙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6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 택지 조성 때 이미 사업비를 원가에 반영해 확보한 상태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착공하지 못한 건 영종도를 연결하는 기존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총 규모가 2011년 분석 땀 최대 2조 원으로 추산됐지만, 최근 용역연구 결과 5천 900억 원까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자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손실보전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대교 운영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2039년까지 분할 지급하는 점과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623

글로벌 바이오기업 독일 ‘베터’사 송도에 등지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업체 ‘베터(Vetter)’사의 한국지사가 지난 11월 9일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열었다. 독일 남부 라벤스부르크에 있는 ‘베터’사는 연 매출 6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미국에 2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일본에도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자회사 등을 두고 있다. ‘베터’사의 이번 한국지사 설립은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산업 의약품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송도국제도시에 추가적인 연구소나 공장 등도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시 투자유치과 ☎ 440-3297



2021년 두 배로 늘어나는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시가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대통령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공약에 맞춰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애인 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계획한 목표가 달성되면 인천 지역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은 6.7%에서 13.4%로, 이용률은 10.7%에서 21.2%까지 증가한다. 문의 : 시 보육정책과 ☎ 440-2893



‘훈맹정음 본고장’ 인천 첫 점자도서관 개관

인천 첫 점자도서관인 ‘송암점자도서관’이 지난 11월 29일 남구 학익동에서 문을 열었다. 도서관은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부지에 시 예산 21억 원을 들여 전체 넓이 766㎡ 3층 규모로 지어졌다. 내부에는 열람실·점자도서제작실·녹음실 외에도 한글 점자 ‘훈맹정음(訓盲正音)’ 창시자인 인천 출신 송암 박두성 선생의 기념관을 갖췄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박두성 선생은 1888년 인천 강화군 고동면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생을 맹인 교육에 전념했고, 1926년 최초의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발표했다. 문의 : 시 장애인복지과 ☎ 440-2939

강화 교동·웅진 영흥도 등
급수 지역 3만1천 가구 확대

강화군 교동도와 웅진군 영흥도 일부 지역 등 3만 1천여 가구에 수도물이 공급된다. 우리 시는 식수 난을 겪는 지하수 고갈 지역과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상수도 급수 구역을 확대한다. 이번에 새로 수도물이 공급되는 지역은 총 51곳으로, 시내 상수도 급수 면적 비율은 68%에서 74%로 높아졌다. 교동도와 영흥도 일부 지역 이외에 신시가지가 조성 중인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아람물류단지, 신국제여객터미널 일대, 영종하늘도시 등도 추가 급수 구역에 포함됐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 720-2122



일본 아이리스오야마,
송도에 연구·제조 시설 첫 삽



일본 최대 생활 용품 기업인 아이리스오야마가 송도국제도시에 소형 가전 및 생활 용품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1월 14일 G타워에서 아이리스오야마 그룹이 100% 투자한 한국법인 아이리스코리아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리스오야마는 세계 각지에 26개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연간 매출액이 4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12월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부지 2만7천여㎡에 소형 가전·생활 용품 연구·제조 시설을 착공,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374

2022년 인천에 스마트 공장 1천 개 문 연다



우리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지역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 1천 개를 보급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펼쳐 6개 기업에 구축을 마쳤으며, 11개 기업은 현재 구축 중이다. 지난해 구축을 마친 6개 기업은 생산량과 납기 준수율이 각각 61%, 7%씩 늘었다. 또 불량률이 49% 줄어 기업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뚜렷한 성과를 냈다. 시는 무료로 사전 진단 컨설팅을 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국가 지원 5천만 원에, 시비 2천만 원을 더해 최고 7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산업진흥과 ☎ 440-4287

강화도 남단에
의료 관광 단지 세운다

우리시가강화도 남단 화도면, 길상면 일원 900만㎡에 의료 관광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인천시장은 지난 11월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주 소재 부동산 개발 업체인 파나핀토 프로퍼티즈의 조셉 파나핀토(Joseph Panepinto) 회장과 ‘강화 휴먼메디시티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강화도 남단 화도면, 길상면 일원에 의료 연구 시설을 비롯해 병원과 숙박시설, 리조트 등이 집적화된 의료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는 사업 부지 900만㎡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824

375억 원 창업재기펀드 조성

우리 시는 375억 원 규모의 ‘인천 창업재기펀드(가칭)’를 조성해 청년 창업과 재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창업재기펀드는 정부의 ‘삼세번재기펀드’ 300억 원, 인천시 20억 원, 위탁운용사 25억 원, 진학사 3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 펀드는 경영에 실패했지만 성공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을

국내 최고 권위
‘2017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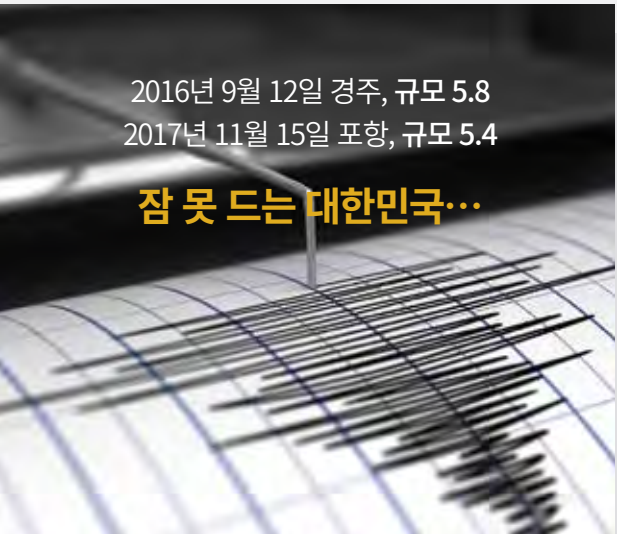
우리 시가 지난 11월 8일 열린 ‘2017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전국 1위로 대상(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99년부터 시상한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이다. 시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통해 중소기업 디자인 연구 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디자인 전문 회사가 최근 10년 사이에 17배 증가하는 등 관련 여건 조성에 노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의 : 시 산업진흥과 ☎ 440-4264

지원하는 데 쓰이며, 기존 융자 지원 방식이 아니라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과거 실패를 딛고 재기하는 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 등이다.

문의 : 시 창업지원과 ☎ 440-4167

IMAGE
NEWS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가요?



#집 안에서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 #집밖에서는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넓은 공간으로 대피
#인천시 지진 #시민 행동 요령 소책자 발간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확보율 #전국 평균 43.7%
#인천 51.9%
#민간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 지원율 #부산 13.5%
인천 21.1%



#2018년도 기존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대책 수립
#2030년 완료 목표#지진 대피소 확충 #홍보 활동 강화



COUNCIL NEWS



인천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인천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년 한 해 인천시의 살림인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인천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9조271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조7천770억 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3조4천958억 원 규모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교육청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해 교육복지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제갈원영 의장은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한 해 살림을 확정하는 것인 만큼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맞는 건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와 교통 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7회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1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지방의회연구소 김성수 초빙교수는 향후 선거 일정 안내와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및 주요 골자, 의정 활동 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전 선거 운동 판단 기준 변경 사항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 등에 대해 강의한 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편, 제갈원영 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깨끗한 정치 구현과 시민을 위한 봉사라는 의회의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수준 높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서해해양관광발전 연구회,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서해해양관광발전연구회는 지난 11월 21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인천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인천시 관광진흥과장, 인천관광공사 팀장, ANF공공디자인연구소장이 참여해 인천 섬 관광 활성화 추진 방안과 해양 관광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안 모색 및 연구회 연구 활동 성과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서해해양관광발전연구회 대표인 허준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은 인천 해양 관광의 발전과 비전 제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정 아카데미 제171회 청소년 의정 교실 운영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월 1일 제171회 청소년 의정 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의정 교실에는 인성 여자고등학교 학생 29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의회 소개에 이어 전문 강사로부터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특강을 청취했다. 또한 모의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상정과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찬반 토론 후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며 조례 제정 과정을 체험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의정 교실을 통해 인천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7년도 청소년 의정 교실에는 총 20개교, 638명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의회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과 토론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됐다.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 인천YMCA와 업무 협약 체결



인천시의회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는 지난 11월 13일 인천YMCA와 저출산 문제 해결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의회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는 3월부터 한국폴리텍 II 대학을 시작으로, 인천관광공사, 신한은행, 경인교육대학교, 한림병원, 서울여성병원 등 현재까지 총 24개 기관 및 단체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인천YMCA는 보유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활동을 홍보하고, 다양한 캠페인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 대표 박영애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 협약에 참여한 인천YMCA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기관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천대 행정학과, 의정 아카데미 시민 의정 교실 참가

인천대학교 글로벌법정경대학 행정학과 학생 26명이 지난 11월 14일 인천시의회 의정 아카데미 시민 의정 교실에 참가했다. 시민 의정 교실은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정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현장에서 체험하며, 시민과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제갈원영 의장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제갈원영 의장은 “이번 인천대 학생들의 시민 의정 교실 참여를 계기로 젊은이들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각자 행정가로서의 꿈을 꼭 이루어 우리 사회와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재들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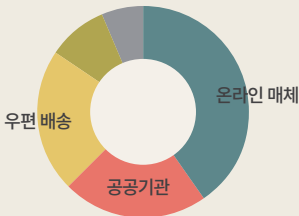
문의 : 의회사무처 ☎ 440-6137~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1994년부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 온 진짜 인천, 진솔한 삶의 보고(寶庫), ‘굿모닝인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설문 조사에 응해주신 1천여 명의 시민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면을 통해 그 결과를 공유해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
는 ‘굿모닝인천’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조사 대상 : ‘굿모닝인천’ 독자 및 인천 시민
참여자 수 : 981명
조사 방법 : 설문지를 통한 응답자 자기 기입 방식
(굿모닝인천 및 인천시 공식 페이스북)
조사 기간 : 2017년 8월 호~2017년 11월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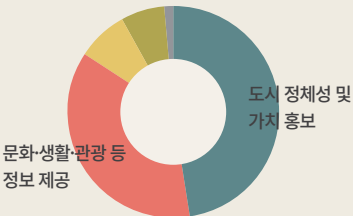
1. 굿모닝인천 접촉 경로



- 웹진/인터넷 서점 등 온라인 매체 40.4%
- 공공기관 비치 22.3%
- 우편 배송 21.9%
- 대중교통 시설 9.1%
- 기타 6.2%

*SNS를 통한 설문 참여자 다빈도로 웹진/인터넷 서점 등 온라인 매체에 접촉 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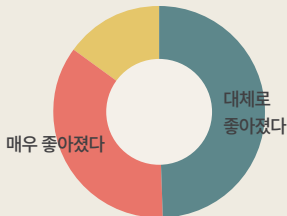
2. 굿모닝인천 매체 성격



- 인천 도시 정체성 및 가치 홍보 매체 47.5%
- 문화, 생활, 관광 등 정보 제공 매체 36.8%
- 시민 대상 주요 정책 공유 매체 7.7%
- 시민 대상 시장 활동 홍보 매체 6.7%
- 시민 대상 시장 성과 정보 공유 매체 1.3%

*모든 성별과 연령에서 ‘굿모닝인천’이 인천의 도시 정체성
과 가치를 홍보하는 매체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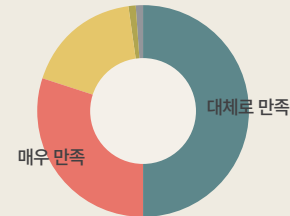
3. 인천 인식 변화



- 대체로 좋아졌다 49.6%
- 매우 좋아졌다 35.5%
- 특별한 변화가 없다 14.9%

*‘굿모닝인천’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78.8%로,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에서는 50대 이상 독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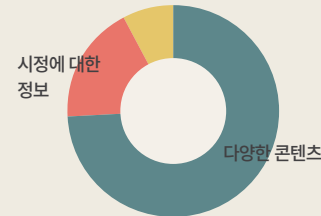
4-1. 굿모닝인천 만족도



- 대체로 만족한다 49.6%
- 매우 만족한다 29.2%
- 보통이다 20.4%
-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0.4%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0.4%

*전체 73.9%의 독자들이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굿모닝인천’에 대해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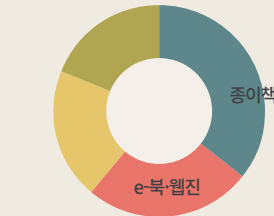
4-2. 만족하는 이유



- 인천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 73.9%
- 인천 시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18.1%
-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7.6%

*‘굿모닝인천’을 접한 후 인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
다는 응답이 전체 85.1%를 차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5. 발행 형태 선호도



- 종이책으로 발간되는 오프라인 형태 35.8%
- e-북 또는 웹진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형태 25.5%
- 오프라인 형태를 중심으로 하되,
온라인 동시 발행 19.9%
- 온라인 형태를 중심으로 하되, 오프라인
동시 발행 18.8%

*e-북 또는 웹진 등 온라인 매체보다 종이책으로 발행되는 오프라인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타 추가·보강됐으면 하는 내용

다양한 공연 이벤트, 축제 행사 정보, 독자 이벤트
인천의 미래와 역사에 관련된 내용
추천 여행지, 문화·여가 생활, 맛집 정보
시정, 지방 정책, 복지 형태 등 시정 계획

인천시에서 하는 일, 시민 대상 정책과 혜택
시민 참여 활성화(아이디어 공모, 시민 참여 칼럼 등)
학생 활동 교육 프로그램 정보
재테크, 리사이클링 코너 등에 대한 정보 등

생물 보물섬, 서해5도

글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홍보팀



장수삿갓조개(*Tugalina vadososinuata boonsooi*)
사진 출처 : © 국립생물자원관 김현중

인천에서 생물이 가장 서식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 인천은 서해 바다와 접해있고 168개 크고 작은 섬이
있어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비록 도심지는 크고 높은 건물들이 생물들의 터전을
차지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인천의 섬들은 아직 본연의 생태계를 잘 간직하고 있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비무장지대(DMZ)와 함께 우리나
라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 중 하나다. 북방계와 남방계 생물의 연결 지역으로 생태학
적 가치가 높으며, 우리나라에 기록된 조류의 약 75%(400여 종)를 포함하는 국내 최대의 철새 경유지이
기도 하다.

때문에 서해5도에는 육지에서 보기 힘든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많이 서식한다. 백령도는 물범의 최대 서식
지이며 대청도에서는 구렁이, 소청도에서는 매를 볼 수 있다. 서해5도에서만 서식하는 고유 식물도 있다.
대청도와 백령도에서는 대청부채가 자라며 대청도에서는 대청지치, 백령도에서는 시베리아여뀌가 서
식한다.

지난 5월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한반도 고유종인 ‘장수삿갓조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장수
삿갓조개는 둥근 삿갓모양의 껍데기(패각)를 가진 바다달팽이로 수심 10m 깊이에서 바위 등에 몸을 부착
해 미세조류를 먹는다. 껍데기는 낮은 삿갓모양으로 노란빛을 띤 흰색이며, 조갯살은 흰색이다. 그동안 태
안해안국립공원이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었으나,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대규모 서식지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서해5도가 남방계와 북방계 생물이 공존하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을 보여줬다.

장수삿갓조개는 2007년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태안 해안에서 3년만인 2010년 다시 발견됐다. 우리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이지만 다른 어떤 생물보다도 강한 생명력을 증명한 셈이다. 송구영신
(送舊迎新). 2017년 묵은해는 보내고, 장수삿갓조개처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는 희망찬
2018년이 되길 바란다.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인터넷신문 I-View 사이트 개편 기념 이벤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발행하는 인천시 인터넷 신문 ‘I-View’가 멀티미디어 시대, 변화되는 온라인 환경에 발맞춰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편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구독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신문 사이트 : www.eneews.incheon.go.kr

이벤트 기간 : 11월 22일(수)~12월 10일(일)까지

이벤트 내용 : 신규 가입자 및 응원의 글 남긴 분 대상 100명 추첨

상 품 : 1만 원 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

문의 : 시 브랜드담당관실 ☎ 440-8302

[개편된 ‘I-View’ 특징]

- 뉴스레터와 홈페이지 디자인을 세련되고 심플하게 리뉴얼
- PC나 모바일 등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 강화
- 공유, 퍼가기, 댓글 기능 강화



02

추울수록 따뜻해지는 나눔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은 겨울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착한 캠페인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 2018년 1월 31일(수)까지

ARS 기부 : ☎ 060-700-1210(1통 당 3천 원)

문의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 456-3333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 접수처 안내

인천 지역 군·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웃 돕기 성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구 주민생활지원과 ☎ 760-6963	계양구 주민복지과 ☎ 450-5793
동구 주민생활지원과 ☎ 770-6482	서구 희망복지과 ☎ 560-5883
남구 사회복지과 ☎ 880-4809	강화군 복지지원실 ☎ 930-3785
연수구 복지정책과 ☎ 749-7664	옹진군 복지지원과 ☎ 899-2354
남동구 복지정책과 ☎ 453-2544	시청 공감복지과 ☎ 440-2978
부평구 사회보장과 ☎ 509-6374	



03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강좌 학습 안내

온라인 평생 교육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가 아래와 같이 강좌를 운영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무료 학습이 가능한 인천 시민 사이버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

교육 과정 : 新TOEIC, HSK, 공인중개사, 방과후지도사, 코딩, 바둑, 명사특강 등 174개의 기본 과정과 외국인을 위한 6개의 한국어 특별 과정
※ 자원봉사과정은 봉사시간 인정(청소년 1시간, 일반인 2시간)

수강료 : 무료

교육 기간 : 연중상시

교육 방법 :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cyber.incheon.kr) 접속

교육 혜택 : 교육 수료자 문화상품권 이벤트 실시(매월 130명 추첨)

문의 : 시 인재개발원 ☎ 440-7686~7

04

아동 학대 신고는 ‘아동 지킴콜 112’

마땅히 사랑 받고 보호 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등의 아동 학대. 이웃 중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아동 학대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화 : 국번 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문의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 434-6436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거해 보장됩니다.

05

국가자격증 ‘유아숲지도사’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사단법인 한국숲교육협회에서 국가자격증 ‘유아숲지도사’를 취득할 수 있는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 인원 : 40명(선착순)

접수 : 이메일 접수(wald-edu@hanmail.net)

교육비 : 180만 원(분할 납부 가능), 교재비, 상해보험 가입비, 견학비, 실습비 포함
※ 양성 과정 이수 후 국가자격증 ‘유아숲지도사’ 획득

문의 : 사단법인 한국숲교육협회 ☎ 439-8880

06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업 모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에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분야 : 금형, 절삭가공, 자동차 정비, 전자 기기 생산, 자동 제어 기기 제작, 세무 회계

조건 :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인 기업

*지역인력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 특구, 부처 전담 기관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10인 이상 기업 선정 가능

*경영 회계 사무 분야 등은 엄정한 현장 심사와 추천 절차를 통해 5인 이상 기업도 참여 일부 허용

지원 : 훈련 과정 개발비, 현장 훈련 학습 도구 컨설팅, 기업 현장 교사 수당, 기업 현장 교사 및

HRD 담당자 연수, 학습 근로자 훈련 지원금(사업주), 현장 훈련 비용 등

문의 : 한국폴리텍 II 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인천도제지원센터 ☎ 725-3334~7



07

인천여성의광장 교육 수강생 모집

인천여성의광장에서 2018년의 시작을 함께할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

-IT, 어학 : 12월 13일(수) 오전 9시부터

*그 외 과목 12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공인중개사 대기자 : 12월 15일(금) 오전 9부터

교육 기간 : 2018년 1월 2일(화) ~ 3월 24일(토)

교육 대상 : 인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문의 : 인천여성의광장 ☎ 815-7101~3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 학생 모집

개교 55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과 학습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향초중고야간 학교 학생 모집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교육 과정 : 초등, 중등, 고등 과정(초등 과정은 한글반과 병행 지도)

교육 대상 :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음

수업 시간 : 매주 월~금요일 오후 6시 30분~9시

모집 기간 : 12월 20일(수)까지 *평일 오후 2시 이후 접수(토, 일, 공휴일은 휴무)

교육 장소 : 중구 자유공원로 123-19

문의 :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 ☎ 772-4061

08

09

무료 심리 검사 이벤트

인천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에서 무료 심리검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내용 : 심리 검사 및 해석 상담(성격, 진로, 대인관계 등)

기간 : 12월~2018년 1월 중

방법 : 신청 후 내방 > 심리 검사 실시 > 해석 상담

*검사 실시 1일, 해석 상담 1일, 총 2일 소요

대상 :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인원 : 50명

비용 : 전액 지원

문의 : 인천 예그리나 통합심리상담센터 ☎ 887-8458

서부여성회관 사회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서부여성회관은 2018년 제1기 사회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교육 기간 : 2018년 1월 2일(화)~3월 19일(월), 11주 과정

교육 분야 : 자격증 취득, 취업창업 교육, IT 전문 교육, 어학 전문 교육, 문화 아카데미, 웰빙 건강 교육, 주말 교육, 특강

모집 대상 : 만18세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 여성(전체 20% 남성 수강 가능)

모집 기간 : 12월 18일(월)~29일(금) (인터넷 선착순 접수)

문의 : 서부여성회관 ☎ 458-7360

10

11

인천 일자리 카페 ‘잡스(Job’s) 인천’ 오픈

인천시가 시민 일자리 정보 접근성 개선과 일자리 지원 서비스 현장성 향상을 위해 일자리 카페 ‘잡스(Job’s) 인천’을 오픈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위치 :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Link126 빌딩 내

지원 내용

- 소모임, 스터디, 세미나, 이벤트 등의 진행이 가능한 휴게 공간 및 스타디움 운영

- 상주 진로 컨설턴트를 통한 개인별 맞춤 진로 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커피 등 음료 지원

오픈 일자 : 2017년 12월 초 예정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8시(일요일, 공휴일 휴관)

문의 : 일자리종합센터 ☎ 1600-1982

12

인천 향토사 강좌 개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에서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제87회 인천 향토사 강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시간 : 12월 4일(월) 오후 2시~5시 10분

장소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사랑방

인원 : 40명 내외

내용

- 강화도의 전설과 시(이태희 인천대 기초교육원 초빙 교수)

- 인천의 사회적 자본과 공유경제(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소 상임위원)

신청 : 사전 전화 예약

문의 : 역사자료관 시사편찬위원회 ☎ 440-8382~3, 773-3498

13

카드 포인트로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 안내

한 번 소멸되면 되돌릴 수 없는 아까운 카드 포인트를 내일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정치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부 방법

①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접속 후 포인트 조회

②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접속 → 후원금 기부 → 기부하기 클릭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해 기부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음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14

치매 어르신을 위한 배회 감지기 무료 보급 사업

인천광역시치매센터와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과 배회 방지를 위한 배회 감지기 무료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선착순 신청 가능한 이번 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상 : 인천시 거주 치매 어르신 중 배회 증상 및 실종 경험이 있으신 분

*단, 스마트폰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대여 기간 : 신청 일부터 2018년 7월 20일(금)까지

사용료 : 기계 대여료 및 통신비 무료

문의 : 인천광역시치매센터 ☎ 472-2029

15

인천생활문화박람회 ‘동네방네 동아리’

인천문화재단은 자신에서 어울리는 동아리를 찾는 법과

동아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제1회 인천생활문화박람회 ‘동네방네 동아리’ 행사를 개최합니다.

동아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12월 9일(토) 정오~오후 6시

장소 : 인천생활문화센터 칠동마당 일대

참가비 : 무료

문의 : 인천문화재단 ☎ 760-1033,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 ☎ 523-8017

귀촌친구

歸村親舊



글 이한수
(시인·인성여고 교사)

잘 있는가? 몇 년 전에 얼마간의 농지를 얻어 푸성귀를 가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올해 농사는 어떤가? 그 일이라는 게 잘되어도 걱정, 못되어도 걱정이라던데. 가꾸어 영글게 하는 재미도 모르겠구먼. 세상일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동구 밖 개울에서 먹감던 거 기억나는가?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흔적도 없지만 그 시절 기억은 아직도 선하다네. 그 어린 시절이 참 좋았어. 지나고 보면 다 좋아 보인다고지만 맑은 개울물에 먹감으려면 차를 몰아 두세 시간을 달려야 하는 지금 살림이 그 시절보다 좋아진 것인지 정말 모르겠네.

한번은 그 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네. 모처럼 아버지하고 개울에 나갔지. 내가 헤엄을 못 치는 것도 아닌데 물가에 아이를 두는 아버지의 마음이 영 불안했던 모양이야.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자리를 꼭 지켜야 한다.” 그렇게 단단히 다짐을 하셨지. 한식경이 지난 뒤에 내가 보이질 않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나봐. 아버지는 목청껏 나를 부르며 개울을 따라 내려오셨지.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그런데 나는 개울가에서 태연하게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던 거야. 나를 보자마자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셨지. “이놈아, 제자리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나무라시는데 나는 영문을 모르겠는 거야. “아버지, 저는 제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제자리를 지키려면 뭔가를 붙들든지 아니면 부지런히 헤엄을 쳐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이와 같지 않은가. 제자리를 지키며 사는 게 정말 어려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나를 그냥 놔두질 않네. 다들 흐름을 타고 앞서가려고만 하니 혼자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가는 낙오자가 될 것 같거든.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록 놔두어라, 큰물을 거스르는 짓은 부질없다고들 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탄식하는 이들도 많지 않은가. 흐르는 세상에 떠밀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일이 수월치가 않네. 떠내려가지 않도록 기릴 만한 뜻을 꼭 붙들어야 하는데. 속류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여야 하는데.

여보게, 지난 날 자네가 세상일에 무심한 듯 말할 때 내가 어깃장을 놓은 거 기억하나? 나 하나 어느 기슭에라도 닿아 뿌리야 내리겠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큰물 진 뒤 시든 들풀처럼 한 생 잊힌다는 게 서운하지 않은가? 세상일이라는 게 참 모를 일이야. 자네는 그렇게 잊히고 싶었을 테지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자네 말이 점점 또렷해지니 말일세. 지금 잊히는 것들이 나중에 기억되는 역리(逆理)가 아닌가. 자네가 땅에다 마음을 심는 뜻을 이제 좀 알 듯도 하이. 땀 흘려 낳은 건 땀 흘린 자의 것이라는 건 거역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그 땀마저도 따지고 보면 땅에서 나왔다는 걸 이제야 어렵듯이 깨달은 듯하이. 땅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겉치레들에 우리 이젠 좀 무심해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지금은 소박해 보이지만 자네처럼 기슭마다 살림을 차리는 이가 많아지면 저 강(江)도 여울지고 굽이지지 않겠나. 그리 되면 온갖 생명이 깃들지 않겠나. 자네가 너무 그림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곧 길이 된다’ - 루쉰(魯迅)

큰물에 나가 놓고 싶은 욕심을 다잡기가 참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하멜론의 피리 소리에 현혹될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욕심이라는 게 참... 억지로 큰물을 짓다가 낭패 당하는 걸 보면서 다시 되새긴다. 얇은 강기슭, 개펄이 소중한 생명 길이라는 것을.



숨을 고르겠습니다

인천역은 경인선의 시발역이자 종착역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 온 열차는 이 역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곤 다시 힘차게 달립니다.
역사(驛舍) 인근에 잊힌 공간이 있습니다.
바퀴가 녹슬지 않았는지, 이음새 틈은 벌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는,
밑바닥 길게 뚫린 ‘간이 진찰실’이 있었습니다.
철마(鐵馬)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멀리, 힘차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몽(夢)땅 인천’은 숨을 잠시 고르겠습니다.
더 크게 인천을 담겠습니다.
더 큰 꿈(夢)을 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 중구 북성동